

동향과 이슈 2019-03

# 서울의 노동 동향 16~17

박정우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노동권익센터

동향과 이슈 2019-03

# 서울의 노동 동향 - 2016~17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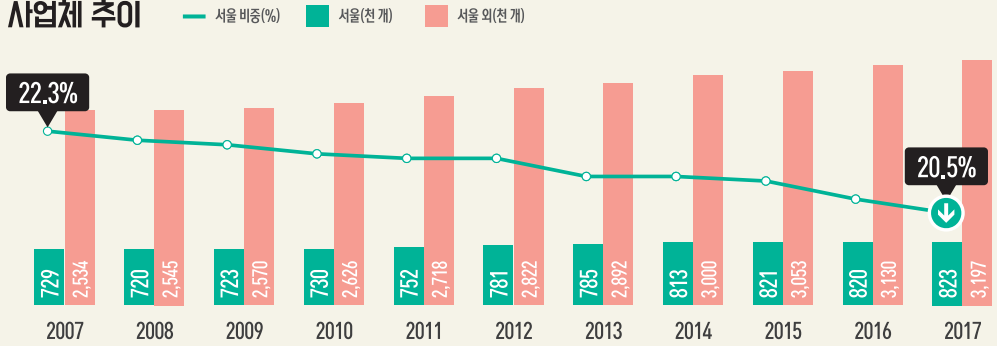
박 정 우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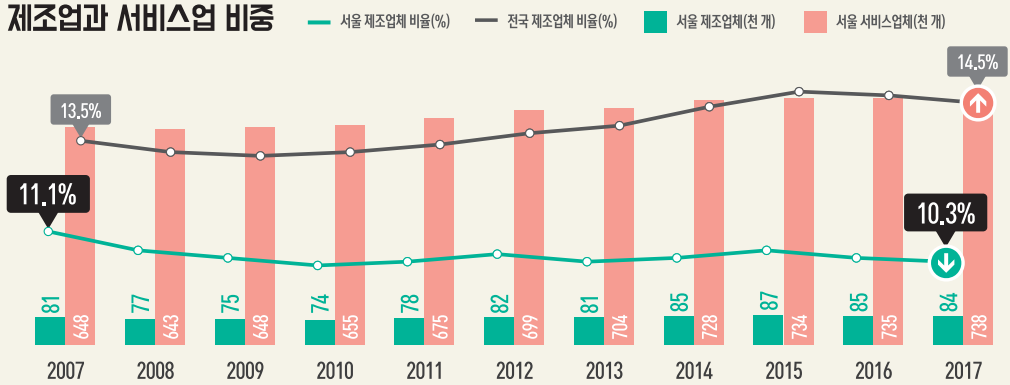


## 서울의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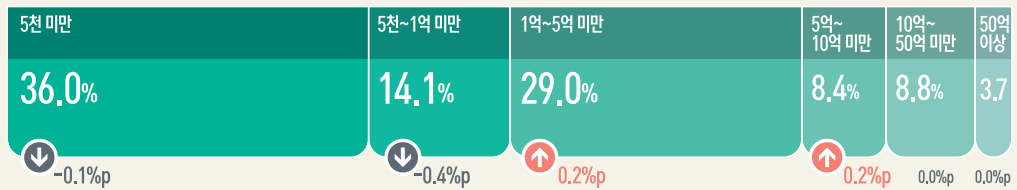
### 사업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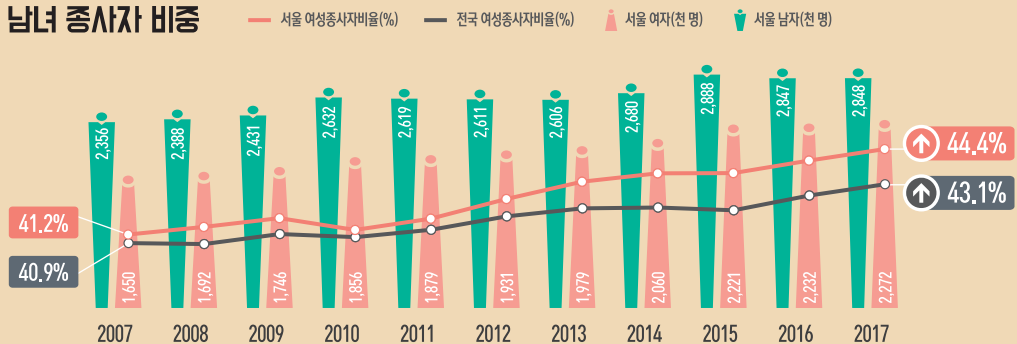
###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



### 매출액별 사업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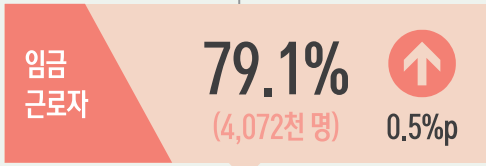


### 남녀 종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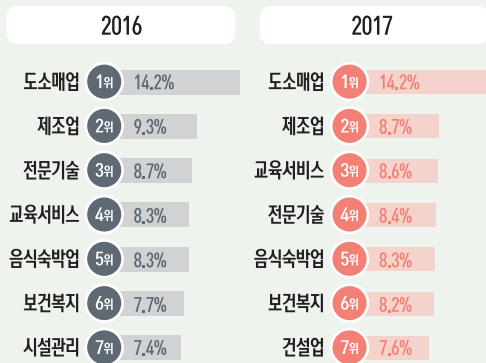


# 서울의 노동 동향 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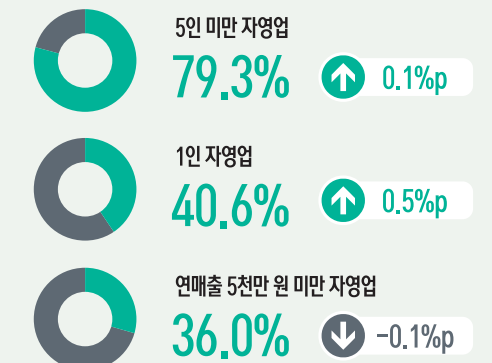
## 취업자 5,147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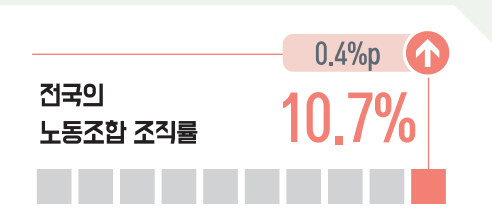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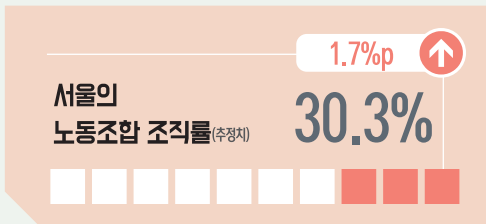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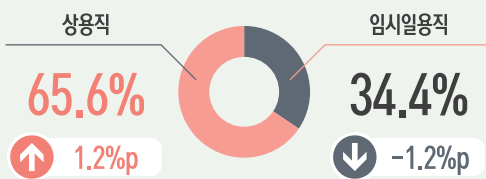
### 임금근로자 산업 분포



### 소규모 자영업



###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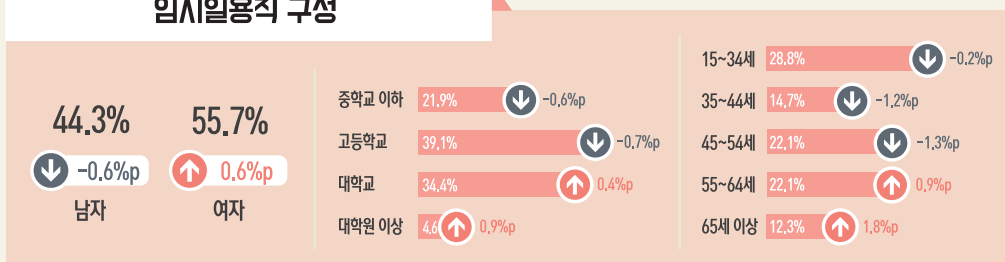


## 서울의 취약계층 근로자 동향 16~17

### 임시일용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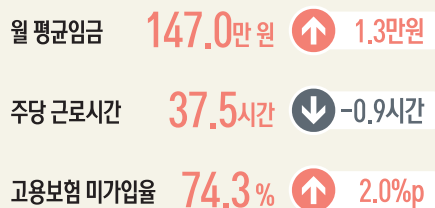
### 임시일용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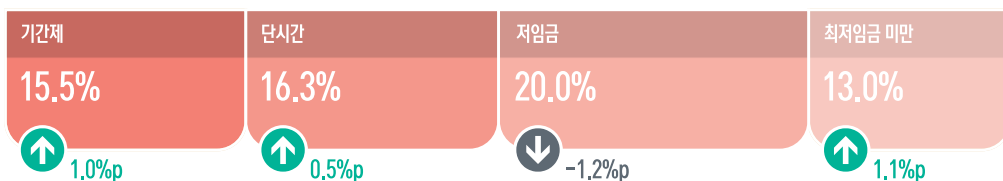
### 임시일용직 산업 분포

2016	2017
음식숙박업 1위 15.6%	음식숙박업 1위 16.2%
도소매업 2위 13.6%	도소매업 2위 13.0%
건설업 3위 12.5%	건설업 3위 12.7%
교육서비스 4위 8.9%	시설관리 4위 10.1%
제조업 5위 8.7%	교육서비스 5위 9.1%
시설관리 6위 7.8%	제조업 6위 6.5%
기타서비스 7위 7.1%	보건복지 7위 6.4%

### 임시일용직 근로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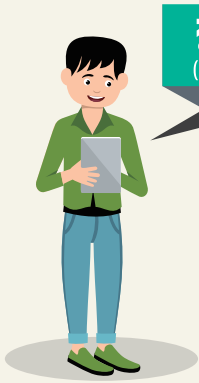


### 취약형태별 비중



# 서울의 취약계층 근로자 동향 16~17

## 청년·여성·노인 경제활동



청년  
(15~34세)

경제활동 참가율  
59.6%



0.7%p

고용률  
54.6%



0.5%p

실업률  
8.4%



0.3%p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54.0%



0.7%p

고용률  
51.5%



0.5%p

실업률  
4.7%



0.5%p



노인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26.4%



0.0%p

고용률  
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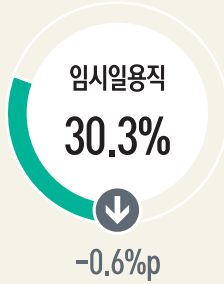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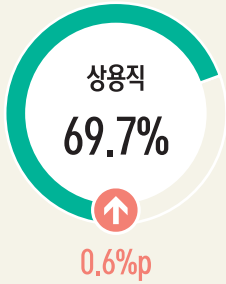
-0.4%p

실업률  
3.2%



1.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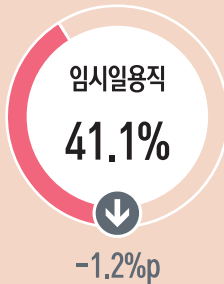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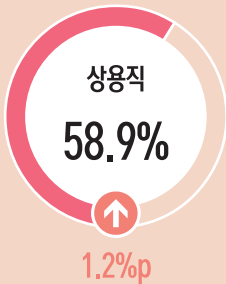
## 청년·여성·노인 근로여건



평균임금 217.5만원 ↑ 1.2만원

근로시간 41.1시간 ↑ 0.2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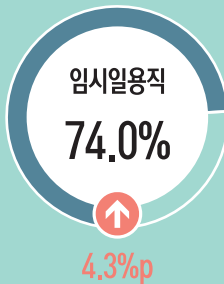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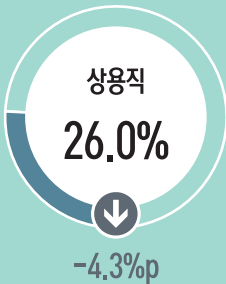
고용보험  
미가입율 21.0% ↑ 0.7%p



평균임금 200.4만원 ↑ 4.6만원

근로시간 39.2시간 - 0.0시간

고용보험  
미가입율 30.8% ↑ 0.2%p



평균임금 128.9만원 ↑ 5.8만원

근로시간 35.1시간 ↓ -0.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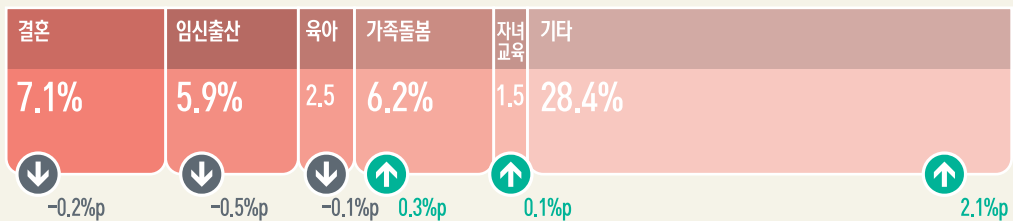
고용보험  
미가입율 77.5% ↑ 0.3%p

# 서울의 취약계층 근로자 동향 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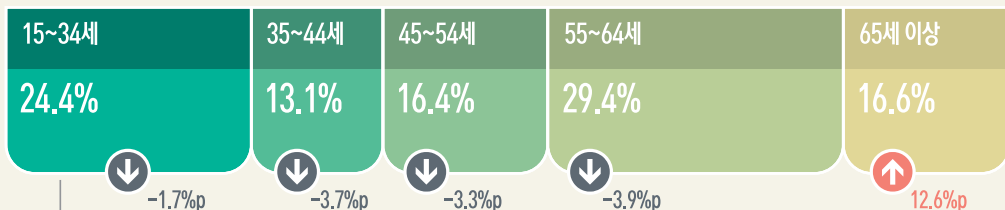
## 여성 경력단절



### 경력단절 사유



## 그냥 쉬었음



그냥 쉬는 청년

87,000명    2016    4,000명 ↑    2017    91,000명

## 임금체불



## - 목 차 -

<b>I. 개요</b> .....	<b>1</b>
1. 목적과 구성 .....	1
2. 분석 대상 .....	2
3. 데이터 .....	4
<b>II. 산업 동향</b> .....	<b>6</b>
1. 사업체 동향 .....	6
2. 종사자 동향 .....	9
<b>III. 노동 동향</b> .....	<b>13</b>
1. 경제활동 동향 .....	13
2. 임금근로자 동향 .....	15
3. 노동조합 동향 .....	19
<b>IV. 취약계층 근로자 동향</b> .....	<b>20</b>
1. 인적속성 구분 .....	20
1) 청년 근로자 .....	20
2) 여성 근로자 .....	24
3) 노인 근로자 .....	30
2. 취약형태 구분 .....	35

1) 임시일용직 근로자 .....	35
2) 기간제 근로자 .....	38
3) 단시간 근로자 .....	41
4) 저임금 근로자 .....	45
5) 소규모 자영업 .....	48
3. 주요 이슈 동향 .....	52
1) 최저임금미만 근로자 .....	52
2) 그냥 쉬었음 .....	56
3) 임금체불 .....	57
<b>V. 주요 결과 및 시사점 .....</b>	<b>59</b>

## - 표 목차 -

〈표-1〉 보고서 구성과 분석 자료 .....	5
〈표-2〉 매출액별 사업체 .....	8
〈표-3〉 매출액별 종사자 .....	12
〈표-4〉 생산인구 .....	13
〈표-5〉 경제활동상태 .....	14
〈표-6〉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14
〈표-7〉 임금근로자의 구성 .....	15
〈표-8〉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16
〈표-9〉 취약형태별 임금근로자의 구성 .....	17
〈표-10〉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	18
〈표-11〉 노동조합 조직 현황 .....	19
〈표-12〉 청년의 경제활동상태 .....	20
〈표-13〉 종사상 지위별 청년 취업자 .....	21
〈표-14〉 청년 임금근로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	22
〈표-15〉 청년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23
〈표-16〉 청년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	24
〈표-17〉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	25
〈표-18〉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 .....	25
〈표-19〉 여성 근로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	26
〈표-20〉 여성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27
〈표-21〉 여성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	28
〈표-22〉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력단절 .....	29
〈표-23〉 노인의 경제활동상태 .....	30

〈표-24〉 종사상 지위별 노인 취업자 .....	31
〈표-25〉 노인 임금근로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	31
〈표-26〉 노인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33
〈표-27〉 노인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	34
〈표-28〉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	35
〈표-29〉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36
〈표-30〉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	38
〈표-31〉 기간제 근로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	39
〈표-32〉 기간제 근로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40
〈표-33〉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여건 .....	41
〈표-34〉 단시간 근로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	42
〈표-35〉 단시간 근로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43
〈표-36〉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여건 .....	44
〈표-37〉 저임금 근로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	45
〈표-38〉 저임금 근로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46
〈표-39〉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여건 .....	47
〈표-40〉 소규모 자영업의 규모 .....	48
〈표-41〉 소규모 사업장의 종사자 규모 .....	49
〈표-42〉 산업별 소규모 자영업 규모 .....	49
〈표-43〉 산업별 소규모 사업장의 종사자 규모 .....	51
〈표-44〉 최저임금미만 근로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	52
〈표-45〉 최저임금미만 근로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54
〈표-46〉 최저임금미만 근로자의 근로여건 .....	55
〈표-47〉 최저임금 미달액 규모 .....	55
〈표-48〉 그냥 쉬었음의 인구사회적 구성 .....	56

〈표-49〉 임금체불 변동 .....	57
〈표-50〉 종사자규모별 임금체불액 .....	58
〈표-51〉 산업별 임금체불액 .....	58

## - 그림 목차 -

[그림-1] 사업체 추이 .....	6
[그림-2]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업체 추이 .....	7
[그림-3]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추이 .....	8
[그림-4] 종사자 추이 .....	9
[그림-5] 성별 종사자 추이 .....	10
[그림-6]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 추이 .....	10
[그림-7]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추이 .....	11



## I. 개요

### 1. 목적과 구성

- 서울의 노동시장 흐름과 취약계층 근로자 동향을 이해하여, 서울시 노동복지연구와 정책수립·의제설정에 기여
- 서울의 노동 동향은 주로 임금 노동자와 취약계층 근로자에 주로 초점
  - 기본적으로는 임금 노동자와 취약계층 근로자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춤. 다만, 보고서는 주요 이슈 분석을 포함시켜,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분석함.
- 2016~17년의 서울의 산업 동향, 노동 동향, 취약계층 근로자 동향 분석
  - 기본적으로 2016년과 2017년 간 서울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되나, 서울과 전국을 비교가능하도록 전국 수치가 함께 표기됨. 또한, 16~17년 양년 간 변화는 세세하게 볼 수 있도록 수, 비율, 증감, 증감률을 표로 제시함. 10년의 장기적인 추세는 흐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프를 사용함.
  - 산업 동향은 노동을 둘러싼 거시적인 경제 지표로서, 사업체 동향과 종사자 동향을 거시적이고 추세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것임. 이는 노동과 취약계층 근로자의 동향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토대가 됨. 본 연구는 추세적 이해에 적합하도록 2007~2017년의 10년 간 흐름을 그래프로 살펴봄.
  - 노동 동향은 경제활동인구, 임금노동, 노동조합의 동향으로 나누어 살

## 2 개요

펴봄. 거시적인 시각으로, 서울의 경제인구동력, 전체 노동시장의 흐름 및 임금노동의 양과 질, 노동조합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함. 노동 동향은 16~17년 양년 간 변화를 수, 비율, 증감, 증감률로 살펴봄.

- 취약계층 근로자 동향은 인적속성, 취약형태, 주요 이슈에 따른 구분으로 세부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함. 인적속성 구분은 청년, 여성, 노인으로, 취약형태 구분은 임시일용직, 기간제, 단시간, 저임금, 소규모 자영업으로, 주요 이슈 분석은 최저임금미만 근로자, 그냥 쉬었음, 임금체불을 검토함. 취약계층 노동자 동향은 주로 이들의 임금근로 양과 질 변화에 초점을 맞춤.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근로자 동향도 16~17년 양년 간 변화를 수, 비율, 증감, 증감률로 살펴봄.

## 2. 분석 대상

### □ 인적속성에 따른 구체적인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청년은 만15~34세로 정의함. 즉, 청년 근로자는 이 연령의 근로자를 지칭함. 학령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남성은 군입대 기간이 포함되면서,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이행시기가 지연되고 있음. 또한, 서울시 청년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15~34세로 설정하였고, 국회에 발의된 청년기본법안,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15~34세로 설정하는 등 최근 청년 연령의 상한을 34세로 보는 법·정책적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노동정책의 기본 토대를 지향하는 본 보고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청년은 만 15~34세로 정의함.
- 노인은 만65세 이상으로 정의함.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노인일자리 정책 대상을 참고하였음.

### □ 취약형태 구분에서 다루는 대상의 구체적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임시일용직은 임금근로자의 직장에서 지위(종사상 지위)에서 '임시

직', '일용직'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임시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이고, 일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임. 이는 비정규직과 많은 부분 공통분모를 형성하여, 많은 연구에서 비정규직으로 지칭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본 연구는 임시일용직으로 비정규직의 동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한다는 정도를 지향하고, 비정규직과 동일시하지 않음.

-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함.
- 단시간근로자도 동 법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되고 있음. 그리고 통계적 정의로서 통계청은 평소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통계청의 정의에 따라, 본 연구도 1주 간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를 단시간근로자로 정의함.
- 저임금근로자는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비 이하의 임금을 받는 임금 근로자임. 본 연구는 OECD 기준에 따라, 주된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이 중위임금의 2/3미만(월133.3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정의함. 2016년과 2017년 중위임금은 200만원으로 동일하였음.
- 소규모 자영업과 그 종사자는 최근 최저임금과 노동복지정책에 주요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소규모 자영업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분석은 종사자 규모와 연매출을 고려하여 3가지로 정의함.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체를 소규모 자영업으로 보고, 이에 더하여 1인 자영업, 연매출이 5,000만 원 미만 자영업자를 추가로 살펴봄. 연매출 5,000만 원은 간이과세대상자가 연매출 4,800만원인 점이 참고되었으며, 데이터의 한계로 200만원의 격

#### 4 개요

차가 발생함.

□ 주요 이슈 분석에서 다루는 대상의 구체적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최저임금미만 근로자는 시간당임금이 2016년(6,030원)과 2017년(6,470원)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함.
- 그냥 쉬었음은 조사기간 동안 특별한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 집단을 의미

### 3. 데이터

□ 분석 데이터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서울시 노동조합 통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 행정데이터 활용

- 전국사업체조사는 산업 동향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분석하는 것에 활용
- 지역별 고용조사는 본 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데이터로서, 임금노동 동향, 취약계층 근로자 동향을 분석하는 것에 활용됨. 분석은 시·도 가중치가 반영됨. 또한, 각 년도의 상·하반기 데이터가 평균 분석됨. 이는 연도 간 비교라는 보고서의 목적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계절 요인을 줄여주는 효과도 가지기 때문임.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상반기는 제외하고 하반기 데이터로만 산출함.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는 조사기간(2016.04.11.~15)에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영향으로 단시간근로자가 과대하게 표집되었기 때문임.
-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과 서울시 노동조합 통계는 노동조합 동향을 살펴보는 것에 활용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 행정데이터는 서울의 임금체불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 활용

&lt;표-1&gt; 보고서 구성과 분석 자료

대목차	종목차		연도	자료
서울의 산업 동향	사업체 동향		2007 ~17	·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 동향			
서울의 노동 동향	경제활동인구 동향		2016 ~17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서울시 노동조합 통계
	임금노동 동향			
	노동조합 동향			
서울의 취약계층 근로자 동향	인적속성 구분	청년 근로자	2016 ~17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서울고용노동청 정보공개청구 자료
		여성 근로자		
		노인 근로자		
	취약형태 구분	임시일용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저임금근로자		
	주요이슈 분석	소규모 자영업자		
		최저임금미만 근로자		
		그냥 쉬었음		
	임금체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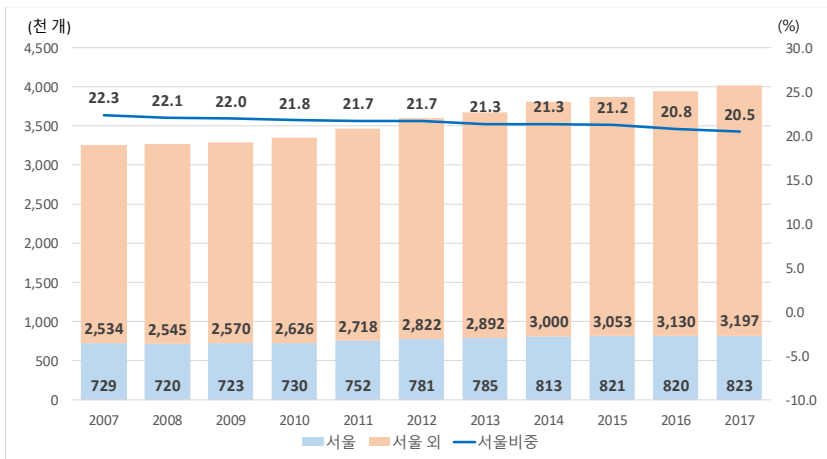
## II. 산업 동향

### 1. 사업체 동향

□ 전국 중 서울 소재 사업체 감소 추세. 10년 간 22.3% → 20.5%

- 비중은 감소 추세지만, 서울의 사업체 수는 증가
- 서울 사업체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서울 외 지역의 사업체 수가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임.

[그림-1] 사업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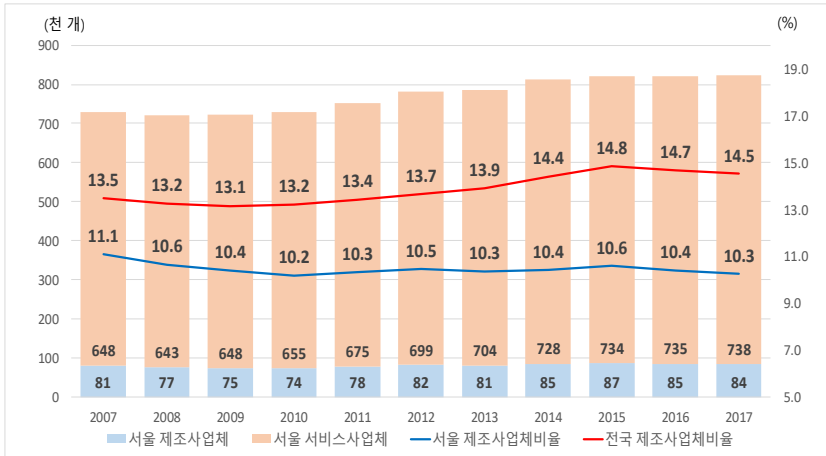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서울 사업체 중 제조업체 비율 10% 수준 유지

- 서울은 제조업체(10.3%)보다 서비스업체(89.7%) 비중 절대적으로 큼.
- 서울의 산업정책과 노동복지정책은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2]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업체 추이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제조업은 2차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에서 제조업(C),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D),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E), 건설업(F)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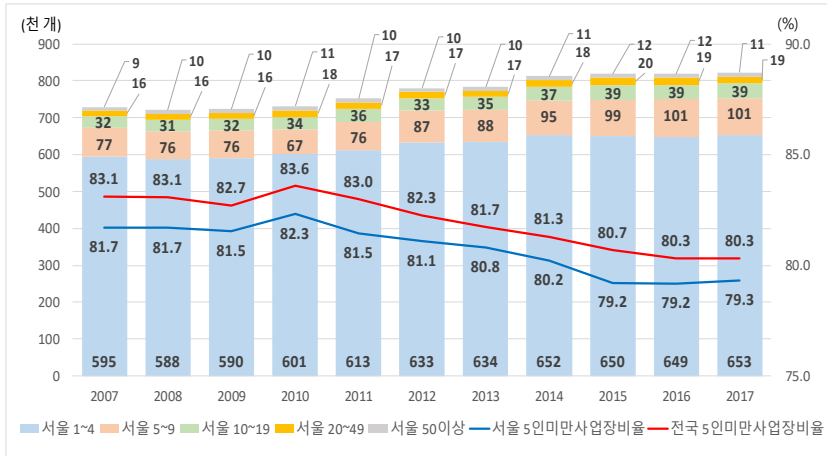
서비스업은 3차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에서 도매 및 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으로 구성

□ 2010년 이후, 5인 미만 사업체 비율 감소 추세. 다만, 최근 3년 79.3% 수준 유지

- 과거 5~9인 사업체가 늘어나면서 5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꾸준히 하락했지만, 2015년 이후 증가세 멈춤.
- 5인 미만 사업체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8 산업 동향

[그림-3]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추이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 중매출 사업체 비중 상승하고, 저매출 사업체 비중 하락

- 2017년 매출액별 사업체 동향은 1억 미만 사업체 비중 하락하고, 1억 이상 사업체 비중 상승.

<표-2> 매출액별 사업체

(천 개, %)

매출액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5천미만	296 (36.1)	296 (36.0)	0 -(0.1)	0.2	1,570 (39.8)	1,580 (39.3)	10 -(0.4)	0.6
5천~1억 미만	119 (14.5)	116 (14.1)	-3 -(0.4)	-2.5	583 (14.7)	583 (14.5)	0 -(0.3)	0.0
1억~5억 미만	237 (28.9)	239 (29.0)	2 (0.2)	0.9	1,047 (26.5)	1,078 (26.8)	31 (0.3)	2.9
5억~10억 미만	67 (8.1)	69 (8.4)	2 (0.2)	3.2	297 (7.5)	309 (7.7)	12 (0.2)	4.2
10억~50억 미만	72 (8.8)	73 (8.8)	1 (0.0)	0.7	330 (8.4)	341 (8.5)	11 (0.1)	3.3
50억 이상	30 (3.7)	30 (3.7)	0 (0.0)	1.0	123 (3.1)	129 (3.2)	6 (0.1)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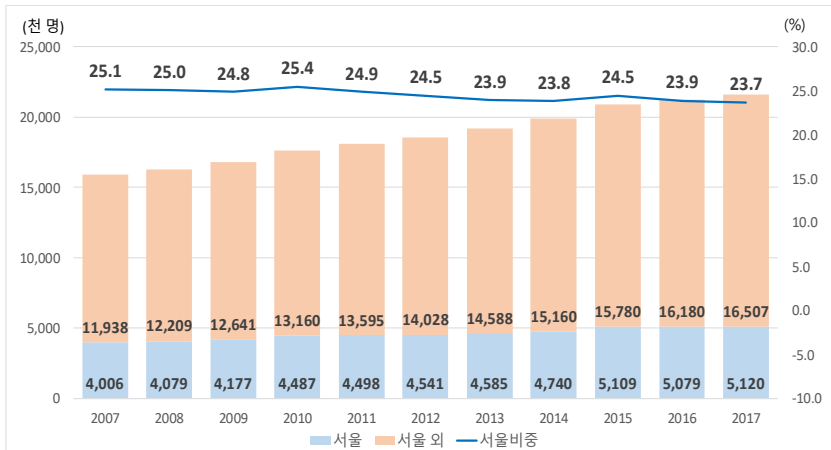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2. 종사자 동향

### □ 전국 중 서울 사업체 종사자 감소 추세. 10년 간 25.1% → 23.7%

- 사업체 수와 마찬가지로,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의 사업체 종사자 수 자체는 증가하고 있음.
- 전국에서 서울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면서 종사자 비중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4] 종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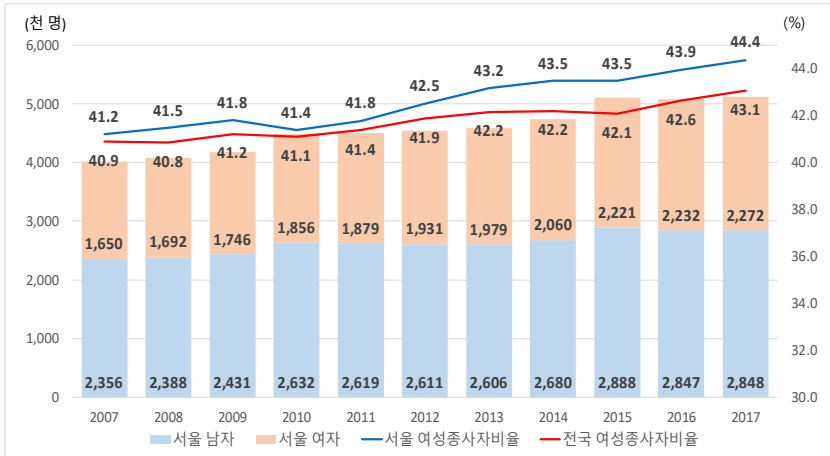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 여성 종사자 빠르게 증가. 지난 10년 간 41.2% → 44.4%

- 서울의 여성 종사자 비율은 10년 간 2007년 41.2%에서 2017년 44.4%로 3.2%p 상승. 특히, 2010년 이후 빠른 증가세
- 남성 종사자는 소폭 증가하는 반면, 여성 종사자가 빠르게 상승함.
- 서울은 여성 중심의 산업정책과 노동복지정책이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음.

## 10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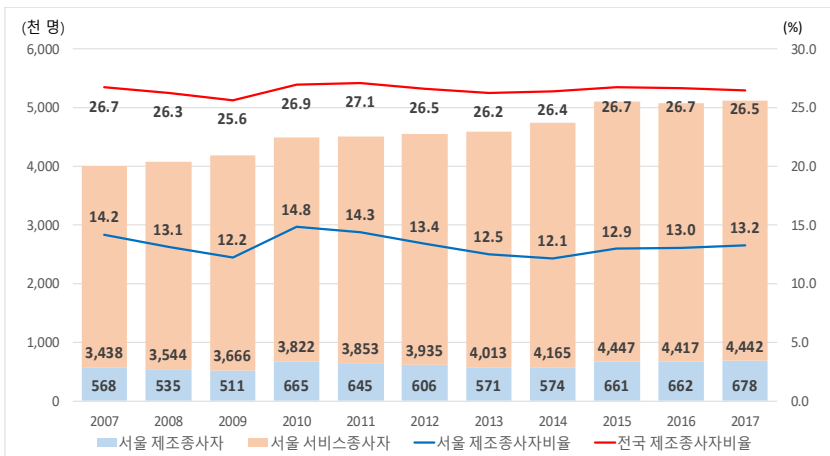
[그림-5] 성별 종사자 추이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 감소하던 제조업체의 종사자 비율 최근 다시 상승 추세

[그림-6]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 추이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서울의 제조업 종사자는 2010년 14.8%에서 2014년 12.1%까지 감소하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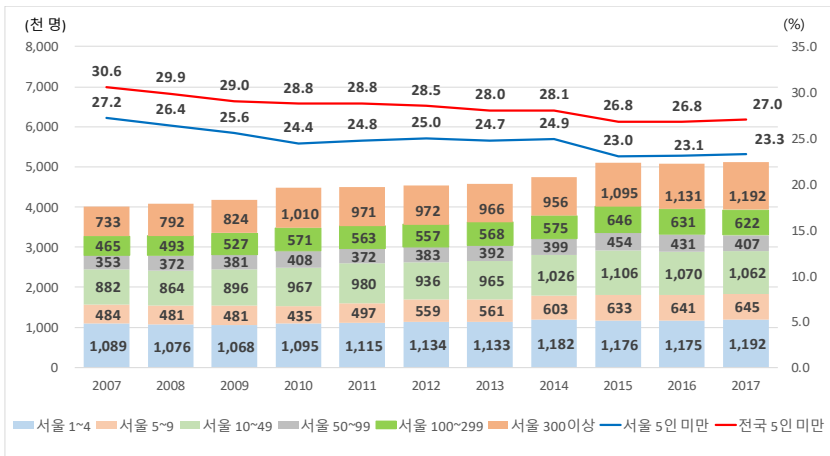
2014년 이후 13.2%까지 다시 상승

- 다만,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그림-2]에서 보았듯, 제조사업체 비중은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가운데, 종사자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과거보다 제조업체가 종사자 규모를 확장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음.

□ 감소 추세였던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율 최근 소폭 상승

- 서울의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 추세. 그러나 최근 2015년 23.0%에서 23.3%로 상승
- 과거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감소는 300인 이상과 10~49인 사업체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임. 그러나 2015년 이후 10~299인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가 감소하면서, 5인 미만 사업체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7]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추이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 매출 300억 이상 사업체 종사자 크게 증가

&lt;표-3&gt; 매출액별 종사자

(천 명, %)

매출액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1억 미만	466 (9.2)	465 (9.1)	-1 -(0.1)	-0.2	1,955 (9.2)	1,996 (9.2)	41 (0.0)	2.1
1억~10억 미만	801 (15.8)	803 (15.7)	2 -(0.1)	0.2	3,299 (15.5)	3,339 (15.4)	40 -(0.1)	1.2
10억~100억 미만	850 (16.7)	830 (16.2)	-20 -(0.5)	-2.4	4,136 (19.5)	4,124 (19.1)	-12 -(0.4)	-0.3
100억~200억 미만	831 (16.4)	839 (16.4)	8 (0.0)	0.9	3,741 (17.6)	3,843 (17.8)	102 (0.2)	2.7
200~300억 미만	893 (17.6)	875 (17.1)	-18 -(0.5)	-2.0	3,852 (18.1)	4,028 (18.6)	176 (0.5)	4.6
300억 이상	1,238 (24.4)	1,309 (25.6)	71 (1.2)	5.7	4,276 (20.1)	4,297 (19.9)	21 -(0.2)	0.5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2017년 서울의 매출액별 종사자 동향을 보면, 300억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가 상승하고, 10~100억과 200억~300억 매출 사업체 종사자 하락
- 300억 이상 종사자 130만 9천명으로 전년대비 7만 1천명(5.7%) 증가  
전체 종사자 중 300억 이상 비중 25.6%로 전년대비 1.2%p 상승
- 10~100억 미만 종사자 83만 명으로 전년대비 2만 명(2.4%) 감소  
전체 종사자 중 10~100억 미만 비중 16.2%로 전년대비 0.5%p 하락
- 200억~300억 미만 종사자 87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8천명 (2.0%) 감소  
전체 종사자 중 200억~300억 미만 17.1%로 전년대비 0.5%p 하락

### Ⅲ. 노동 동향

#### 1. 경제활동 동향

□ 전국은 생산인구 감소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은 생산인구 감소

- 서울은 생산가능인구가 전년대비 1% 감소하였음. 반면, 전국은 아직 생산가능인구가 상승 추세
- 전국과 달리, 서울은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표-4> 생산인구

(천 명, %)

인구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15세이상	8,581	8,555	-26	-0.3	43,620	43,943	323	0.7
생산가능인구 (15~64세)	7,338	7,261	-77	-1.0	36,842	36,859	17	0.0
핵심생산가능인구 (25~49세)	4,005	3,959	-46	-1.1	19,465	19,368	-98	-0.5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모두 상승

- 15세 이상인구 감소보다 경제활동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
- 다만, 증가한 경제활동인구 중 대다수가 실업자로, 3만 명 중 2만4천 명임.
- 실업자가 취업자가 될 수 있는 고용정책이 필요함.

<표-5> 경제활동상태

(천 명, %)

경제활동상태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5,365 (62.5)	5,395 (63.1)	30 (0.5)	0.6	27,532 (62.5)	27,916 (63.1)	384 (0.5)	1.4
비경제활동인구	3,216	3,161	-56	-1.7	16,088	16,027	-61	-0.4
취업자 (고용률)	5,141 (59.9)	5,147 (60.2)	6 (0.2)	0.1	26,535 (59.9)	26,885 (60.2)	350 (0.2)	1.3
실업자 (실업률)	224 (4.2)	248 (4.6)	24 (0.4)	10.9	997 (4.2)	1,030 (4.6)	33 (0.4)	3.2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서울은 전국보다 전년대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이 크게 늘고,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

-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79.1%로 전년대비 0.5%p 상승
-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20.9%로 전년대비 0.5%p 하락
- 서울은 노동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지역이란 것을 알 수 있음.

<표-6>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천 명, %)

종사상 지위 (취업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임금근로자	4,041 (78.6)	4,072 (79.1)	30 (0.5)	0.8	19,698 (74.2)	19,988 (74.3)	291 (0.1)	1.5
비임금근로자	1,100 (21.4)	1,075 (20.9)	-25 (-0.5)	-2.3	6,838 (25.8)	6,897 (25.7)	59 (-0.1)	0.9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2. 임금근로자 동향

□ 2017년 서울의 임금근로자 동향 살펴보면, 중고령자, 여성, 고학력에  
서 크게 늘고, 타지역 사업체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 증가

<표-7> 임금근로자의 구성

(천 명, %)

인구사회적 요인 (임금근로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연령	15~34세	1,350 (33.4)	1,330 (32.7)	-20 -(0.7)	-1.5	6,022 (30.6)	5,910 (29.6)	-113 -(1.0)	-1.9
	35~44세	981 (24.3)	968 (23.8)	-13 -(0.5)	-1.3	4,925 (25.0)	4,927 (24.6)	1 -(0.4)	0.0
	45~54세	906 (22.4)	920 (22.6)	14 (0.2)	1.6	4,805 (24.4)	4,874 (24.4)	70 (0.0)	1.5
	55~64세	587 (14.5)	620 (15.2)	33 (0.7)	5.7	2,881 (14.6)	3,113 (15.6)	232 (0.9)	8.1
	65세 이상	217 (5.4)	233 (5.7)	16 (0.4)	7.6	1,064 (5.4)	1,164 (5.8)	100 (0.4)	9.4
성별	남	2,169 (53.7)	2,175 (53.4)	6 -(0.2)	0.3	11,060 (56.1)	11,179 (55.9)	119 -(0.2)	1.1
	여	1,872 (46.3)	1,896 (46.6)	24 (0.2)	1.3	8,638 (43.9)	8,810 (44.1)	172 (0.2)	2.0
학력	중학교 이하	432 (10.7)	407 (10.0)	-25 -(0.7)	-5.8	2,412 (12.2)	2,386 (11.9)	-26 (-0.3)	-1.1
	고등학교	1,109 (27.4)	1,090 (26.8)	-19 -(0.7)	-1.7	6,580 (33.4)	6,597 (33.0)	17 -(0.4)	0.3
	대학교	2,156 (53.3)	2,189 (53.8)	34 (0.4)	1.6	9,531 (48.4)	9,778 (48.9)	247 (0.5)	2.6
	대학원 이상	345 (8.5)	385 (9.5)	40 (0.9)	11.7	1,175 (6.0)	1,228 (6.1)	53 (0.2)	4.5
소재지	거주지 임금근로자	3,483 (86.2)	3,504 (86.1)	21 -(0.1)	0.6	-	-	-	-
	유출 임금근로자	558 (13.8)	567 (13.9)	10 (0.1)	1.7				
	유입 임금근로자	1,239	1,235	-4	-0.3				
총계	4,041	4,072	30	0.8	19,698	19,988	291	1.5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인구구조의 변화와 중고령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중고령자들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커짐.
- 앞선 산업동향에서도 확인되었던, 여성 종사자 증가 추세가 노동동향에서도 확인됨. 서비스산업의 확대로 여성 임금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임.
- 고학력의 임금근로자가 늘고,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자의 비중은 줄음. 특히, 서울은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들이 크게 늘음. 서울의 임금근로자는 학력수준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살펴볼 때, 서울의 노동정책은 중고령자, 여성, 고학력자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빠르게 상승

<표-8>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상위 산업	서울		전국	
	2016	2017	2016	2017
1	도소매업 (14.2)	도소매업 (14.2)	제조업 (20.4)	제조업 (20.0)
2	제조업 (9.3)	제조업 (8.7)	도소매업 (11.5)	도소매업 (11.5)
3	전문기술서비스 (8.7)	교육서비스업 (8.6)	보건복지서비스 (9.0)	보건복지서비스 (9.2)
4	교육서비스 (8.3)	전문기술서비스 (8.4)	교육서비스 (7.7)	건설업 (7.9)
5	음식숙박업 (8.3)	음식숙박업 (8.3)	건설업 (7.3)	교육서비스업 (7.9)
6	보건복지서비스 (7.7)	보건복지서비스 (8.2)	음식숙박업 (7.1)	음식숙박업 (7.0)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7.4)	건설업 (7.6)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6)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3)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전국과 달리, 서울의 제조업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낮으며 도소매업과 전문기술서비스업의 임금근로자가 많은 특징을 보임.
- 보건복지서비스업의 임금근로자가 7.7%에서 8.2%로 상승하였음.
-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노동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2017년 서울 임금근로자 취약형태를 보면, 임시일용직과 저임금 감소하고, 기간제·단시간·최저임금 미만 증가

<표-9> 취약형태별 임금근로자의 구성

(천 명, %)

취약형태 (임금근로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취약 형태	임시일용	1,439 (35.6)	1,400 (34.4)	-40 (-1.2)	-2.8	6,629 (33.7)	6,555 (32.8)	-74 (-0.9)	-1.1
	기간제	583 (14.4)	629 (15.5)	46 (1.0)	7.9	3,093 (15.7)	3,287 (16.4)	193 (0.7)	6.3
	단시간	637 (15.8)	664 (16.3)	27 (0.5)	4.2	2,983 (15.1)	3,078 (15.4)	95 (0.3)	3.2
	저임금	855 (21.1)	813 (20.0)	-42 (-1.2)	-4.9	4,629 (23.5)	4,124 (20.6)	-505 (-2.9)	-10.9
	최저임금 미만	481 (11.9)	528 (13.0)	47 (1.1)	9.7	2,682 (13.6)	2,739 (13.7)	57 (0.1)	2.1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임시일용직<sup>1)</sup> 34.4%로 전년대비 1.2%p 하락
- 기간제근로자<sup>2)</sup> 15.5%로 전년대비 1.0%p 상승
- 단시간근로자<sup>3)</sup> 16.3%로 전년대비 0.5%p 상승

1) 직장 내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인 임금근로자  
 2) 명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금근로자  
 3)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임금근로자

- 저임금근로자<sup>4)</sup> 20.0%로 전년대비 1.2%p 하락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3.0%로 전년대비 1.1%p 상승

□ 2017년 서울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보면, 전년대비 상용직 상승하고 특수직역보험 가입자 확대됨. 평균임금은 2.0% 증가

<표-10>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천 명, %, 만 원, 시간, 원)

근로여건 (임금근로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종사상 지위	상용직	2,602 (64.4)	2,672 (65.6)	70 (1.2)	2.7	13,069 (66.3)	13,433 (67.2)	364 (0.9)	2.8
	임시 일용	1,439 (35.6)	1,400 (34.4)	-40 (-1.2)	-2.8	6,629 (33.7)	6,555 (32.8)	-74 (-0.9)	-1.1
고용 보험	가입	2,745 (68.4)	2,758 (67.7)	13 (0.7)	0.5	13,108 (66.9)	13,420 (67.4)	312 (0.5)	2.4
	미가입	1,080 (26.9)	1,094 (26.9)	14 (0.1)	1.3	5,326 (27.2)	5,244 (26.4)	-81 (-0.8)	-1.5
	특수 직역	189 (4.7)	221 (5.4)	33 (0.7)	17.3	1,151 (5.9)	1,238 (6.2)	87 (0.3)	7.5
평균임금		257.0	262.1	5.1	2.0	237.6	244.9	7.3	3.1
평균근로시간		41.8	42.0	0.2	0.4	41.8	42.0	0.2	0.5
시간당임금		14,442	14,552	109	0.8	13,200	13,426	226	1.7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임시일용직 비중이 하락하고, 상용직 상승
- 고용보험 가입자는 줄었으나 특수직역보험 가입자 증가로, 특수직역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늘어났다는 것 확인됨.
-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262.1만 원으로 전년대비 5.1만 원(2.0%) 증가

4) 평균임금이 임금근로자 중위임금의 2/3(16년과 17년 133.3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

### 3. 노동조합 동향

#### □ 서울의 노동조합 조직률 30.3%로 전년대비 1.7%p 상승

- 서울의 노동조합은 전년대비 상승폭이 컸으며, 여성 조합원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서울의 노동조합원 123만 4천명으로 전년대비 8만 명(6.8%) 증가
- 남성은 전년대비 5만 3천명(6.1%), 여성은 2만 7천명(9.3%) 증가

<표-11> 노동조합 조직 현황

(개소, %, 천 명)

노동조합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조합수		1,507	1,549	42	2.8	6,164	6,239	75	1.2
조합원	전체 (조직률) <sup>5)</sup>	1,155 (28.6)	1,234 (30.3)	80 (1.7)	6.8	1,967 (10.3)	2,089 (10.7)	122 (0.4)	6.2
	남	864	917	53	6.1	1,525	1,600	75	4.9
	여	291	318	27	9.3	442	488	47	10.4
조직대상 근로자 <sup>6)</sup>		-	-	-	-	19,172	19,565	393	2.0

자료 : 고용노동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노동조합 통계]

5) 노동조합 조직률은 “조합원/(임금근로자-공무원)\*100”으로 조직대상근로자를 분모로 하여 산출됨. 다만, 서울의 조직대상근로자는 발표되지 않아, 임금근로자가 분모로 사용됨. 이는 최소추정으로 만약 서울의 조직대상근로자가 산출되면 위 추정치에서 조직률이 상승할 것임.

6) 조직대상근로자 = 임금근로자 - 공무원

## IV. 취약계층 근로자 동향

### 1. 인적속성 구분

#### 1) 청년 근로자<sup>7)</sup>

##### (1) 청년의 경제활동

□ 15~34세 인구 감소 반면, 청년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실업률 상승

<표-12> 청년의 경제활동상태

(천 명, %)

청년 경제활동상태 (주요 고용지표)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15~34세	2,724	2,655	-69	-2.5	13,012	12,743	-269	-2.1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1,603 (58.8)	1,582 (59.6)	-21 (0.7)	-1.3	7,123 (54.7)	7,026 (55.1)	-97 (0.4)	-1.4
비경제활동인구	1,121	1,073	-48	-4.3	5,889	5,717	-172	-2.9
취업자 (고용률)	1,472 (54.0)	1,449 (54.6)	-24 (0.5)	-1.6	6,588 (50.6)	6,471 (50.8)	-117 (0.2)	-1.8
실업자 (실업률)	131 (8.1)	133 (8.4)	3 (0.3)	1.9	536 (7.5)	555 (7.9)	19 (0.4)	3.6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감소하였으나 15~34세 인구의 감소율이 그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청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상승함.
- 15~34세인구 265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6만 9천명(2.5%) 감소
- 청년 경제활동인구 59.6%로 전년대비 0.7%p 상승, 고용률 54.6%로 전년대비 0.5%p 상승, 실업률 8.4%로 전년대비 0.3%p 상승

7) 연령이 15~34세인 임금근로자

□ 청년 취업자 감소 추세 속에서, 임금근로자 비중 늘고 비임금근로자 감소

- 청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감소하는 와중에,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소폭 상승
- 청년 임금근로자는 91.8%로 전년대비 0.1%p 상승, 비임금근로자 8.2%로 전년대비 0.1%p 하락

<표-13> 종사상 지위별 청년 취업자

(천 명, %)

종사상지위 (취업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임금근로자	1,350 (91.7)	1,330 (91.8)	-20 (0.1)	-1.5	6,022 (91.4)	5,910 (91.3)	-113 (-0.1)	-1.9
비임금근로자	122 (8.3)	118 (8.2)	-3 (-0.1)	-2.8	565 (8.6)	561 (8.7)	-4 (0.1)	-0.6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2) 청년 임금근로자의 동향

□ 청년의 임금근로자 15~19세·20~29세, 여성, 대학원 이상에서 증가 반면, 30~34세, 남성, 전문대 학력에서 감소

- 2017년 서울의 청년 임금근로자는 여성의 비중이 더 높아졌으며, 학력 수준도 석·박사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을 보임.
- 15~19세와 25~29세의 임금근로자 3.3%와 37.2%로 전년대비 각각 0.3%p와 1.4%p 상승
- 청년 여성 임금근로자 53.5%로 전년대비 1.0%p 상승
- 대학원 이상의 학력 비중이 7.2%로 전년보다 0.9%p 상승

<표-14> 청년 임금근로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천 명, %)

인구사회적 요인 (임금근로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연령	15~19세	41 (3.0)	44 (3.3)	3 (0.3)	6.7	216 (3.6)	227 (3.8)	11 (0.2)	4.9
	20~24세	272 (20.1)	264 (19.9)	-8 (-0.3)	-2.9	1,335 (22.2)	1,301 (22.0)	-33 (-0.1)	-2.5
	25~29세	485 (35.9)	495 (37.2)	11 (1.4)	2.2	2,112 (35.1)	2,134 (36.1)	22 (1.0)	1.0
	30~34세	553 (40.9)	527 (39.6)	-26 (-1.3)	-4.7	2,360 (39.2)	2,248 (38.0)	-112 (-1.1)	-4.8
성별	남	642 (47.5)	619 (46.5)	-23 (-1.0)	-3.6	3,186 (52.9)	3,089 (52.3)	-97 (-0.6)	-3.1
	여	709 (52.5)	712 (53.5)	3 (1.0)	0.4	2,837 (47.1)	2,821 (47.7)	-16 (0.6)	-0.5
학력	고등학교이하	231 (17.1)	228 (17.1)	-3 (0.0)	-1.3	1,397 (23.2)	1,361 (23.0)	-36 (-0.2)	-2.6
	전문대	278 (20.6)	262 (19.7)	-16 (-0.9)	-5.7	1,522 (25.3)	1,446 (24.5)	-77 (-0.8)	-5.0
	4년제	757 (56.0)	744 (56.0)	-12 (-0.1)	-1.6	2,838 (47.1)	2,830 (47.9)	-9 (0.8)	-0.3
	대학원이상	85 (6.3)	96 (7.2)	11 (0.9)	13.1	265 (4.4)	274 (4.6)	9 (0.2)	3.3
소재지	거주지 임금근로자	1,202 (89.0)	1,182 (88.8)	-20 (-0.2)	-1.7	-			
	유출 임금근로자	149 (11.0)	149 (11.2)	0 (0.2)	0.0				
	유입 임금근로자	475	459	-16	-3.3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청년 임금근로자 도소매업과 보건복지서비스업 비중 상승

- 청년들이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더욱 강화되었고, 보건복지서비스업 종사비중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도소매업은 18.3%로 전년대비 0.6%p 상승
- 보건복지서비스업은 9.2%로 전년대비 0.9%p 상승

<표-15> 청년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상위 산업	서울		전국	
	2016	2017	2016	2017
1	도소매업 (17.7)	도소매업 (18.3)	제조업 (20.6)	제조업 (20.1)
2	전문기술서비스 (11.7)	전문기술서비스 (11.4)	도소매업 (14.6)	도소매업 (14.9)
3	음식숙박업 (11.1)	음식숙박업 (11.0)	보건복지서비스 (10.0)	음식숙박업 (10.1)
4	정보통신업 (9.1)	보건복지서비스업 (9.2)	음식숙박업 (9.9)	보건복지서비스업 (10.1)
5	교육서비스 (9.0)	교육서비스업 (9.0)	교육서비스 (8.6)	교육서비스업 (8.5)
6	보건복지서비스 (8.3)	정보통신업 (8.7)	전문기술서비스 (6.6)	전문기술서비스 (6.3)
7	제조업 (7.4)	제조업 (7.3)	정보통신업 (5.0)	정보통신업 (5.1)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청년 임시일용직 감소하였지만, 사회보험 사각지대 늘어났고 임금 증가율도 미미

- 청년 임시일용직 30.3%로 전년대비 0.6%p 하락
- 고용보험 미가입자 21.0%로 전년대비 0.7% 상승
- 월평균임금 217.5만 원으로 전년보다 1.2만 원(0.6%) 증가

<표-16> 청년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천 명, %, 만 원, 시간, 원)

근로여건 (임금근로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종사상 지위	상용직	933 (69.1)	927 (69.7)	-6 (0.6)	-0.6	4,201 (69.8)	4,153 (70.3)	-48 (0.5)	-1.1
	임시일용	418 (30.9)	403 (30.3)	-14 (-0.6)	-3.4	1,822 (30.2)	1,757 (29.7)	-65 (-0.5)	-3.6
고용 보험	가입	1,024 (76.4)	1,012 (75.3)	-12 (-1.1)	-1.2	4,413 (73.3)	4,429 (74.3)	16 (1.0)	0.4
	미가입	272 (20.3)	282 (21.0)	10 (0.7)	3.6	1,341 (22.3)	1,264 (21.2)	-77 (-1.1)	-5.7
	특수지역	44 (3.3)	51 (3.8)	6 (0.5)	14.0	267 (4.4)	272 (4.6)	4 (0.1)	1.7
월평균임금		216.3	217.5	1.2	0.6	201.5	206.35	4.85	2.4
주당 근로시간		41.0	41.1	0.2	0.4	41.7	41.7	0.0	0.0
시간당 임금		12,238	12,235	-4	0.0	11,179	11,370	192	1.7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2) 여성 근로자

### (1) 여성의 경제활동

####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실업률 모두 상승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4.0%로 전년대비 0.7%p 상승
- 여성 고용률 51.5%로 전년대비 0.5%p 상승
- 여성 실업률 4.7%로 전년대비 0.5%p 상승

&lt;표-17&gt;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천 명, %)

여성 경제활동상태 (주요 고용지표)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15세이상 여성	4,465	4,459	-6	-0.1	22,212	22,363	151	0.7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2,378 (53.2)	2,407 (54.0)	30 (0.7)	1.3	11,653 (52.5)	11,874 (53.1)	221 (0.6)	1.9
비경제활동인구	2,088	2,052	-36	-1.7	10,559	10,489	-70	-0.7
취업자 (고용률)	2,278 (51.0)	2,295 (51.5)	17 (0.5)	0.8	11,235 (50.6)	11,462 (51.3)	227 (0.7)	2.0
실업자 (실업률)	100 (4.2)	112 (4.7)	12 (0.5)	12.4	418 (3.6)	412 (3.5)	-6 (-0.1)	-1.5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 여성 임금근로자 증가한 반면 비임금근로자 감소

- 여성 임금근로자 82.6%로 전년대비 0.4%p 상승
- 여성 비임금근로자 17.4%로 전년대비 0.4%p 하락
-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임금근로 여성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졌음.

&lt;표-18&gt;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

(천 명, %)

종사상지위 (취업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임금근로자	1,872 (82.2)	1,896 (82.6)	24 (0.4)	1.3	8,638 (76.9)	8,810 (76.9)	172 (0.0)	2.0
비임금근로자	406 (17.8)	399 (17.4)	-7 (-0.4)	-1.6	2,597 (23.1)	2,652 (23.1)	55 (0.0)	2.1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2) 여성 임금근로자의 동향

□ 여성 임금근로자 35~54세, 65세 이상, 고학력자, 유출 근로자에서  
주요하게 늘음

<표-19> 여성 근로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천 명, %)

인구사회적 요인 (임금근로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연령	15~34세	709 (37.8)	712 (37.5)	3 -(0.3)	0.4	2,837 (32.8)	2,821 (32.0)	-16 -(0.8)	-0.5
	35~44세	385 (20.5)	389 (20.5)	4 (0.0)	1.1	1,918 (22.2)	1,915 (21.7)	-3 -(0.5)	-0.2
	45~54세	403 (21.5)	412 (21.7)	9 (0.2)	2.3	2,097 (24.3)	2,130 (24.2)	33 -(0.1)	1.6
	55~64세	276 (14.7)	273 (14.4)	-2 -(0.3)	-0.9	1,253 (14.5)	1,349 (15.3)	96 (0.8)	7.6
	65세 이상	101 (5.4)	111 (5.8)	10 (0.5)	10.0	533 (6.2)	595 (6.8)	62 (0.6)	11.6
학력	중학교 이하	258 (13.8)	239 (12.6)	-20 -(1.2)	-7.6	1,434 (16.6)	1,410 (16.0)	-24 -(0.6)	-1.7
	고등학교	540 (28.9)	531 (28.0)	-10 -(0.9)	-1.8	2,926 (33.9)	2,934 (33.3)	8 -(0.6)	0.3
	대학교	951 (50.8)	985 (51.9)	34 (1.2)	3.6	3,894 (45.1)	4,046 (45.9)	153 (0.9)	3.9
	대학원 이상	123 (6.6)	142 (7.5)	19 (0.9)	15.6	384 (4.4)	419 (4.8)	35 (0.3)	9.2
소재지	거주지 임금근로자	1,724 (92.1)	1,736 (91.6)	12 -(0.5)	0.7				
	유출 임금근로자	148 (7.9)	160 (8.4)	12 (0.5)	8.1				
	유입 임금근로자	467	455	-12	-2.5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여성 임금근로자는 45~54세의 중년과 65세 이상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중고령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보건복지서비스업의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됨.
- 또한, 여성 임금근로자에서도 고학력자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대학원 이상이 크게 증가하였음.

#### □ 보건복지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이 상승하고, 도소매업 하락

- 보건복지서비스업은 15.0%로 전년대비 1.2%p 상승. 2017년 서울의 여성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산업이 됨.
- 도소매업은 14.7%로 전년대비 0.3%p 하락
- 교육서비스업은 12.1%로 전년대비 0.4%p 상승
- 2017년 서울의 여성 노동시장은 보건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 구조 개편됨. 여성 대상 노동정책은 보건복지산업에 더 큰 관심 필요

<표-20> 여성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상위 산업	서울		전국	
	2016	2017	2016	2017
1	도소매업 (15.0)	보건복지서비스업 (15.0)	보건복지서비스업 (17.1)	보건복지서비스업 (17.8)
2	보건복지서비스업 (13.8)	도소매업 (14.7)	제조업 (13.0)	제조업 (13.5)
3	교육서비스업 (11.7)	교육서비스업 (12.1)	도소매업 (13.0)	도소매업 (12.9)
4	음식숙박업 (11.0)	음식숙박업 (11.0)	교육서비스업 (11.7)	교육서비스업 (11.8)
5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8.3)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7.6)	음식숙박업 (10.7)	음식숙박업 (10.4)
6	제조업 (7.5)	제조업 (7.4)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7.0)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2)
7	전문기술서비스 (7.1)	전문기술서비스 (6.6)	금융및보험업 (4.9)	공공행정서비스업 (4.6)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여성 임시일용직 감소하였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특수지역보험 가입자 증가**

- 여성 임시일용직 41.1%로 전년대비 1.2%p 하락
- 특수지역가입자 5.6%로 전년대비 0.6%p 상승
- 고용보험 미가입자 30.8%로 전년대비 0.2%p 상승
- 여성 임금근로자는 특수지역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 확인되는 동시에,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커진 것도 확인됨.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축소하려는 노력 필요

<표-21> 여성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천 명, %, 만 원, 시간, 원)

근로여건 (임금근로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종사상 지위	상용직	1,080 (57.7)	1,117 (58.9)	37 (1.2)	3.4	4,983 (57.7)	5,210 (59.1)	227 (1.4)	4.5
	임시일용	792 (42.3)	779 (41.1)	-13 (-1.2)	-1.6	3,655 (42.3)	3,600 (40.9)	-55 (-1.4)	-1.5
고용 보험	가입	1,194 (64.5)	1,202 (63.6)	7 (-0.8)	0.6	5,249 (61.2)	5,458 (62.3)	209 (1.2)	4.0
	미가입	567 (30.6)	582 (30.8)	14 (0.2)	2.5	2,861 (33.3)	2,797 (31.9)	-64 (-1.4)	-2.2
	특수지역	91 (4.9)	105 (5.6)	14 (0.6)	15.1	472 (5.5)	502 (5.7)	30 (0.2)	6.4
월평균임금		195.8	200.4	4.6	2.3	172.1	179.8	7.8	4.5
주당 근로시간		39.1	39.2	0.0	0.0	38.8	38.9	0.1	0.4
시간당 임금		11,629	11,831	202	1.7	10,261	10,610	349	3.4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경력단절 경험자 5.4% 증가.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단절 감소하고, 초등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 증가**

- 여성 임금근로자 중 경력단절 경험자 51.6%로 전년대비 1.7%p 상승

- 초등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상승
-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하락
- 서울은 경력단절 여성의 증가를 낮추려는 노동과 복지정책 필요함. 초  
등돌봄정책, 간병 및 요양정책, 가족돌봄휴가제 등 활성화 필요해보임.

<표-22>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력단절

(천 명, %)

경력단절 (임금근로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경험 여부	경험	924 (49.8)	974 (51.6)	50 (1.7)	5.4	5,105 (59.5)	5,262 (60.1)	157 (0.6)	3.1
	미경험	929 (50.2)	914 (48.4)	-15 (-1.7)	-1.6	3,477 (40.5)	3,495 (39.9)	18 (-0.4)	0.5
경험 사유	결혼	136 (7.3)	134 (7.1)	-1 (-0.2)	-1.1	838 (9.8)	821 (9.4)	-17 (-0.3)	-2.0
	임신출산	118 (6.4)	111 (5.9)	-7 (-0.5)	-5.6	713 (8.3)	719 (8.2)	6 (-0.3)	0.8
	육아	49 (2.6)	47 (2.5)	-2 (-0.1)	-3.5	292 (3.4)	273 (3.1)	-19 (-0.3)	-6.6
	초등자녀교육	26 (1.4)	28 (1.5)	3 (0.1)	10.0	175 (2.0)	176 (2.0)	2 (0.0)	1.0
	가족돌봄	109 (5.9)	117 (6.2)	8 (0.3)	7.6	730 (8.5)	720 (8.2)	-10 (-0.3)	-1.4
	기타	486 (26.3)	536 (28.4)	49 (2.1)	10.1	2,358 (27.5)	2,553 (29.2)	195 (1.7)	8.3

자료 :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3) 노인 근로자<sup>8)</sup>

#### (1) 노인의 경제활동

#### □ 2017년 서울 65세 이상인구 4.1% 증가. 노인 고용률 하락하고 실업률 상승

- 노인 고용률 25.6%로 전년대비 0.4%p 하락
- 노인 실업률 3.2%로 전년대비 1.5%p 상승
- 서울은 노인의 실업률이 상승한 반면 고용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취업의지에 비해 노인의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취업하고 싶은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고용정책 필요

<표-23> 노인의 경제활동상태

(천 명, %)

노인 경제활동상태 (주요 고용지표)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65세 이상	1,243	1,294	51	4.1	6,778	7,084	306	4.5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329 (26.4)	342 (26.4)	13 (0.0)	4.1	2,204 (32.5)	2,309 (32.6)	105 (0.1)	4.8
비경제활동인구	914	952	38	4.1	4,575	4,775	200	4.4
취업자 (고용률)	323 (26.0)	331 (25.6)	8 (-0.4)	2.5	2,170 (32.0)	2,267 (32.0)	97 (0.0)	4.5
실업자 (실업률)	6 (1.7)	11 (3.2)	5 (1.5)	91.2	34 (1.5)	43 (1.8)	9 (0.3)	26.1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 노인 임금근로자 빠르게 증가한 반면, 비임금근로자 감소

- 노인 임금근로자 70.4%로 3.3%p 상승
- 노인의 경제활동은 임금근로자 비중이 늘어나고, 비임금근로자는 줄음. 따라서 노인 대상 노동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8) 연령이 65세 이상인 근로자

&lt;표-24&gt; 종사상 지위별 노인 취업자

(천 명, %)

종사상지위 (취업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임금근로자	217 (67.1)	233 (70.4)	16 (3.3)	7.6	1,064 (49.0)	1,164 (51.4)	100 (2.3)	9.4
비임금근로자	106 (32.9)	98 (29.6)	-8 (-3.3)	-7.9	1,106 (51.0)	1,102 (48.6)	-4 (-2.3)	-0.3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2) 노인 임금근로자의 동향

□ 서울의 노인 임금근로자는 모든 집단에서 상승 추세. 특히, 65~69세와 75세 이상, 여성, 고졸, 거주지 임금근로자 빠른 상승

- 65~69세와 75세 이상의 임금근로자 51.5%와 17.2%로 각각 0.9%p와 0.4%p 상승
- 여성 노인 임금근로자 47.5%로 전년대비 1.0%p 상승
- 고졸인 노인 임금근로자 28.1%로 전년대비 0.8%p 상승
- 거주지와 사업체가 모두 서울인 노인 임금근로자 92.6%로 전년대비 0.2%p 상승

&lt;표-25&gt; 노인 임금근로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천 명, %)

인구사회적 요인 (임금근로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연령	65~69세	110 (50.6)	120 (51.5)	10 (0.9)	9.5	518 (48.6)	564 (48.4)	46 (-0.2)	8.9
	70~74세	71 (32.6)	73 (31.3)	2 (-1.3)	3.2	311 (29.3)	335 (28.7)	23 (-0.5)	7.5
	75세 이상	36 (16.8)	40 (17.2)	4 (0.4)	10.2	235 (22.1)	266 (22.8)	31 (0.7)	13.0

32 취약계층 근로자 동향

인구사회적 요인 (임금근로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성별	남	116 (53.6)	122 (52.5)	6 (-1.0)	5.5	531 (49.9)	570 (48.9)	39 (-1.0)	7.3
	여	101 (46.4)	111 (47.5)	10 (1.0)	10.0	533 (50.1)	595 (51.1)	62 (1.0)	11.6
학력	중졸 이하	127 (58.5)	136 (58.4)	9 (-0.1)	7.4	722 (67.8)	792 (68.0)	70 (0.2)	9.7
	고졸	59 (27.3)	65 (28.1)	6 (0.8)	10.6	240 (22.5)	263 (22.6)	23 (0.0)	9.6
	전문대 이상	31 (14.2)	32 (13.6)	1 (-0.6)	2.7	103 (9.6)	110 (9.4)	7 (-0.2)	7.0
소재지	거주지 임금근로자	200 (92.4)	216 (92.6)	16 (0.2)	7.9				
	유출 임금근로자	16 (7.6)	17 (7.4)	1 (-0.2)	4.4				
	유입 임금근로자	29	31	2	5.6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노인 임금근로자는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공공행정서비스에서 상승 반면, 보건복지서비스와 도소매 하락

- 노인 임금근로자의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됨. 청소원, 경비원 같은 시설관리에서 매우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비중 상승. 한편, 공공행정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노인일자리와 같이 65세 이상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과가 서울에서 확인됨.
- 시설관리 및 사원지원서비스업은 26.5%로 전년대비 0.7%p 상승
- 공공행정서비스업은 10.2%로 전년대비 1.9%p 상승
- 그러나 노인 임금근로자 중 보건복지서비스업은 10.9%로 전년대비 0.3%p 하락
- 도소매업은 6.2%로 전년대비 1.9%p 하락

&lt;표-26&gt; 노인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상위 산업	서울		전국	
	2016	2017	2016	2017
1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5.8)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6.5)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9.8)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8.7)
2	보건복지서비스업 (11.2)	보건복지서비스업 (10.9)	보건복지서비스업 (17.8)	보건복지서비스업 (18.5)
3	부동산업 (8.5)	공공행정서비스업 (10.2)	공공행정서비스업 (13.4)	공공행정서비스업 (13.6)
4	도소매업 (8.1)	부동산업 (9.0)	제조업 (7.0)	제조업 (6.5)
5	공공행정서비스업 (8.3)	개인서비스업 (7.1)	도소매업 (5.9)	부동산업 (6.0)
6	개인서비스업 (6.6)	도소매업 (6.2)	부동산업 (5.5)	건설업 (6.0)
7	제조업 (6.2)	건설업 (6.1)	건설업 (4.9)	도소매업 (5.6)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 노인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빠르게 상승. 그러나 평균임금 상승폭 이 4.8%로 크게 나타남

- 노인 임시일용직 74.0%로 전년대비 4.3%p 상승
- 월평균임금 128.9만 원으로 전년대비 5.8만 원(7.8%) 증가

<표-27> 노인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천 명, %, 만 원, 시간, 원)

근로여건 (임금근로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종사상 지위	상용직	66 (30.2)	61 (26.0)	-5 -(4.3)	-7.6	257 (24.2)	275 (23.7)	18 -(0.5)	7.0
	임시일용	151 (69.8)	173 (74.0)	21 (4.3)	14.2	807 (75.8)	889 (76.3)	82 (0.5)	10.2
고용 보험	가입	47 (22.7)	50 (22.5)	3 -(0.3)	6.2	193 (18.7)	196 (17.9)	3 -(0.9)	1.4
	미가입	160 (77.3)	173 (77.5)	13 (0.3)	7.9	837 (81.1)	900 (82.1)	63 (0.9)	7.5
	특수지역	0 (0.0)	0 (0.0)	0 (0.0)	0.0	1 (0.1)	0 (0.0)	-1 -(0.1)	0.0
월평균임금		123.1	128.9	5.8	4.8	103.3	110.6	7.3	7.1
주당 근로시간		35.2	35.1	-0.1	-0.4	31.8	31.9	0.1	0.4
시간당 임금		8,534	8,936	402	4.7	7,590	7,974	384	5.1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2. 취업형태 구분

### 1) 임시일용직 근로자

□ 전체적으로 임시일용직 4만 명 감소. 그러나 55세 이상 중고령자와 대학원 이상 고학력자에선 오히려 증가

<표-28>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천 명, %)

인구사회적 요인 (임시일용직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연령	15~34세	418 (29.0)	403 (28.8)	-14 -(0.2)	-3.4	1,822 (27.5)	1,757 (26.8)	-65 -(0.7)	-3.6
	35~44세	229 (15.9)	205 (14.7)	-24 -(1.2)	-10.3	1,110 (16.7)	1,029 (15.7)	-80 -(1.0)	-7.2
	45~54세	337 (23.4)	309 (22.1)	-28 -(1.3)	-8.3	1,563 (23.6)	1,469 (22.4)	-93 -(1.2)	-6.0
	55~64세	304 (21.2)	309 (22.1)	5 (0.9)	1.5	1,328 (20.0)	1,411 (21.5)	83 (1.5)	6.2
	65세 이상	151 (10.5)	173 (12.3)	21 (1.8)	14.2	807 (12.2)	889 (13.6)	82 (1.4)	10.2
성별	남	647 (45.0)	621 (44.3)	-27 -(0.6)	-4.1	2,974 (44.9)	2,955 (45.1)	-19 (0.2)	-0.6
	여	792 (55.0)	779 (55.7)	-13 (0.6)	-1.6	3,655 (55.1)	3,600 (54.9)	-55 -(0.2)	-1.5
학력	중학교 이하	324 (22.5)	307 (21.9)	-17 -(0.6)	-5.4	1,651 (24.9)	1,638 (25.0)	-12 (0.1)	-0.8
	고등학교	573 (39.8)	547 (39.1)	-26 -(0.7)	-4.5	2,731 (41.2)	2,665 (40.6)	-66 -(0.6)	-2.4
	대학교	490 (34.0)	482 (34.4)	-8 (0.4)	-1.6	2,091 (31.5)	2,081 (31.7)	-10 (0.2)	-0.5
	대학원 이상	52 (3.6)	64 (4.6)	12 (0.9)	22.4	156 (2.4)	171 (2.6)	15 (0.3)	9.6
총계		1,439 (100.0)	1,400 (100.0)	-40 (0.0)	-2.8	6,629 (100.0)	6,555 (100.0)	-74 (0.0)	-1.1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서울의 임시일용직 140만 명으로 전년대비 4만 명(2.8%) 감소
- 55~64세와 65세 이상에서 30만 9천명과 17만 3천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5천명(1.5%)과 2만 1천명(14.2%) 증가  
임시일용직 중 55~64세와 65세 이상 비중 22.1%와 12.3%로 각각 0.9%p와 1.8%p 상승
- 대학원 이상 학력의 임시일용직 6만 4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2천명 (22.4%) 증가  
임시일용직 중 대학원 이상 비중 4.6%로 전년대비 0.9%p 상승

□ 임시일용직은 도소매업·제조업에서 하락 반면, 음식숙박·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교육서비스에서 상승

<표-29>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상위 산업	서울		전국	
	2016	2017	2016	2017
1	음식숙박업 (15.6)	음식숙박업 (16.2)	음식숙박업 (15.3)	음식숙박업 (14.9)
2	도소매업 (13.6)	도소매업 (13.0)	도소매업 (13.1)	건설업 (13.5)
3	건설업 (12.5)	건설업 (12.7)	건설업 (12.1)	도소매업 (12.6)
4	교육서비스업 (8.9)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1)	제조업 (9.2)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8.8)
5	제조업 (7.8)	교육서비스업 (9.1)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9.2)	제조업 (8.8)
6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8.7)	제조업 (6.5)	교육서비스업 (7.9)	교육서비스업 (7.9)
7	개인서비스업 (7.1)	보건복지서비스업 (6.4)	보건복지서비스업 (7.0)	보건복지서비스업 (7.5)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음식숙박업과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중고령자와 교육서비스업은 고학력자와 관련하여 상승한 것으로 보임.
- 도소매업은 13.0%로 전년대비 0.6%p, 제조업 6.5%로 전년대비 1.3%p 하락
- 반면, 음식숙박업은 16.2%로 전년대비 0.6%p,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10.1%로 전년대비 1.4%p, 교육서비스업 9.1%로 전년대비 0.2%p 상승
- 한편, 2016년 상위 7개 산업에 없었던 보건복지서비스업은 2017년 임시일용직 상위 분포 산업에 포함됨.

□ **임시일용직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더욱 커졌으며, 임금증가율은 미약**

- 임시일용직의 고용보험 미가입자 74.3%로 전년대비 2.0%p 상승
- 월평균임금 147.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만 원(0.9%) 증가
- 2017년의 임시일용직의 근로여건은 고용보험 미가입율 상승과 월평균 임금의 미미한 상승이 나타나 나빠졌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두 가지 현상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임. 월평균임금의 미미하게 하락은 임시일용직이 감소하고, 상용직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기 때문임. 반면, 고용보험 미가입율이 늘어나는 것은 상용직 전환 노력과 별개로, 임시일용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표-30>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천 명, %, 만 원, 시간, 원)

근로여건 (임시일용직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고용 보험	가입	387 (27.6)	357 (25.5)	-30 (-2.1)	-7.8	1,567 (23.8)	1,578 (24.1)	11 (0.3)	0.7
	미가입	1,013 (72.3)	1,040 (74.3)	27 (2.0)	2.7	5,018 (76.1)	4,958 (75.8)	-59 (-0.4)	-1.2
	특수지역	2 (0.1)	3 (0.2)	1 (0.1)	82.9	6 (0.1)	8 (0.1)	2 (0.0)	26.4
월평균임금		145.7	147.0	1.3	0.9	136.8	142.0	5.2	3.8
주당 근로시간		38.5	37.5	-0.9	-2.4	37.5	36.9	-0.6	-1.5
시간당 임금		9,214	9,721	506	5.5	8,662	9,143	481	5.6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2) 기간제 근로자<sup>9)</sup>

□ 2017년 서울의 기간제근로자 7.9% 증가. 특히, 청년층과 중고령자, 남성과 여성 모두, 대학교 이상에서 크게 증가

- 15~34세 31.3%로 전년대비 1.2%p 상승
- 55~64세와 65세이상 19.8%와 13.9%로 전년대비 각각 0.5%p와 0.8%p 상승
- 대학교와 대학원이상 비중 43.7%와 8.7%로 각각 2.9%p와 1.3%p 상승

9)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한 근로자를 의미함.

&lt;표-31&gt; 기간제 근로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천 명, %)

인구사회적 요인 (기간제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연령	15~34세	175 (30.0)	197 (31.3)	21 (1.2)	12.3	867 (28.0)	893 (27.2)	26 (-0.8)	3.1
	35~44세	100 (17.1)	105 (16.7)	5 (-0.4)	5.1	518 (16.8)	543 (16.5)	25 (-0.2)	4.8
	45~54세	120 (20.5)	116 (18.4)	-4 (-2.1)	-3.3	613 (19.8)	636 (19.4)	23 (-0.5)	3.8
	55~64세	112 (19.3)	124 (19.8)	12 (0.5)	10.7	588 (19.0)	656 (20.0)	68 (0.9)	11.5
	65세 이상	76 (13.0)	87 (13.9)	11 (0.8)	14.9	508 (16.4)	559 (17.0)	51 (0.6)	10.1
성별	남	279 (47.9)	303 (48.1)	23 (0.2)	8.4	1,447 (46.8)	1,558 (47.4)	111 (0.6)	7.7
	여	304 (52.1)	327 (51.9)	23 (-0.2)	7.4	1,646 (53.2)	1,729 (52.6)	83 (-0.6)	5.0
학력	중학교 이하	121 (20.8)	114 (18.1)	-7 (-2.7)	-6.1	776 (25.1)	810 (24.6)	34 (-0.4)	4.4
	고등학교	181 (31.0)	186 (29.5)	5 (-1.5)	2.6	1,055 (34.1)	1,106 (33.7)	52 (-0.4)	4.9
	대학교	238 (40.8)	275 (43.7)	37 (2.9)	15.5	1,117 (36.1)	1,206 (36.7)	88 (0.6)	7.9
	대학원 이상	43 (7.4)	55 (8.7)	12 (1.3)	26.9	146 (4.7)	165 (5.0)	19 (0.3)	13.2
총계		583 (100.0)	629 (100.0)	46 (0.0)	7.9	3,093 (100.0)	3,287 (100.0)	193 (0.0)	6.3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기간제 근로자는 보건복지서비스, 건설업, 공공행정서비스에서 상승

- 보건복지서비스업 12.3%로 전년대비 2.4%p 상승
- 건설업 10.2%로 전년대비 0.6%p 상승
- 공공행정서비스업 6.7%로 전년대비 0.6%p 상승
- 보건복지서비스업은 기간제 확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됨. 기간제근로자 논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분야로 보임.

<표-32> 기간제 근로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상위 산업	서울		전국	
	2016	2017	2016	2017
1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5.6)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4.1)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4.7)	보건복지서비스업 (14.2)
2	교육서비스업 (11.9)	보건복지서비스업 (12.3)	보건복지서비스업 (13.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3.2)
3	도소매업 (9.7)	교육서비스업 (11.9)	제조업 (10.7)	교육서비스업 (10.4)
4	건설업 (9.6)	건설업 (10.2)	교육서비스업 (10.4)	제조업 (10.2)
5	음식숙박업 (9.1)	도소매업 (9.2)	공공행정서비스업 (9.1)	건설업 (9.6)
6	보건복지서비스 (9.5)	음식숙박업 (8.1)	건설업 (8.1)	공공행정서비스업 (8.8)
7	공공행정서비스업 (6.1)	공공행정서비스업 (6.7)	도소매업 (7.6)	도소매업 (7.7)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1~2년과 2년 초과 계약근로자 크게 증가하였고,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미가입률 상승

- 계약기간 1년~2년 근로자 33.7%로 전년대비 3.1%p 상승

- 계약기간 2년 초과 근로자 6.1%로 전년대비 1.3%p 상승
- 고용보험 미가입자 43.2%로 전년대비 2.6%p 상승
- 서울은 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빠르게 늘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국의 흐름과 다른 현상으로 특기할만함.

&lt;표-33&gt;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여건

(천 명, %, 만 원, 시간, 원)

근로여건 (기간제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계약 기간	1년 미만	377 (64.6)	379 (60.2)	2 (-4.4)	0.5	1,945 (62.9)	2,087 (63.5)	142 (0.6)	7.3
	1년~2년	178 (30.5)	212 (33.7)	34 (3.1)	19.0	1,013 (32.7)	1,047 (31.8)	34 (-0.9)	3.3
	2년 초과	28 (4.8)	38 (6.1)	10 (1.3)	36.0	136 (4.4)	153 (4.7)	18 (0.3)	12.9
고용 보험	가입	334 (58.4)	294 (55.3)	-40 (-3.1)	-12.0	1,780 (56.6)	1,632 (54.3)	-148 (-2.3)	-8.3
	미가입	232 (40.6)	229 (43.2)	-3 (2.6)	-1.3	1,343 (42.7)	1,350 (44.9)	7 (2.2)	0.5
	특수직역	6 (1.0)	8 (1.5)	2 (0.5)	38.9	24 (0.8)	23 (0.8)	-1 (0.0)	-4.2
월평균임금		175.3	184.1	8.8	5.0	155.8	164.6	8.8	5.6
주당 근로시간		38.3	38.2	-0.1	-0.4	37.2	37.3	0.1	0.3
시간당 임금		10,899	11,382	483	4.4	9,732	10,168	436	4.5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3) 단시간 근로자<sup>10)</sup>

10) 단시간근로자는 법정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함. 본 연구는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정의함. 또한, 단시간근로자는 상반기는 제외하고 하반기 데이터로만 산출됨.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는 조사기간(2016.04.11.~15)에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영향으로 단시간근로자가 과대하게 표집되었기 때문임.

□ 2017년 단시간근로자 4.2% 증가.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 여성, 학력 수준이 고등학교와 대학원 이상에서 크게 증가

- 단시간 중 15~34세와 65세 이상 비중 33.1%와 16.5%로 전년대비 0.6%p와 0.6%p 상승
- 단시간 중 여성 68.4%로 전년대비 3.3%p 상승
- 학력이 고등학교와 대학원이상인 단시간 28.9%와 9.2%로 전년대비 각각 0.8%와 1.8% 상승

<표-34> 단시간 근로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천 명, %)

인구사회적 요인 (단시간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연령	15~34세	207 (32.5)	220 (33.1)	12 (0.6)	6.0	834 (28.0)	854 (27.7)	20 (-0.2)	2.4
	35~44세	96 (15.1)	95 (14.2)	-2 (-0.9)	-1.9	460 (15.4)	464 (15.1)	5 (-0.3)	1.1
	45~54세	115 (18.1)	121 (18.2)	6 (0.1)	5.1	565 (18.9)	564 (18.3)	-1 (-0.6)	-0.3
	55~64세	117 (18.4)	120 (18.0)	2 (-0.4)	2.0	553 (18.5)	562 (18.3)	9 (-0.3)	1.7
	65세 이상	101 (15.9)	109 (16.5)	8 (0.6)	8.1	572 (19.2)	634 (20.6)	63 (1.4)	10.9
성별	남	222 (34.9)	210 (31.6)	-13 (-3.3)	-5.7	983 (33.0)	981 (31.9)	-2 (-1.1)	-0.2
	여	415 (65.1)	455 (68.4)	39 (3.3)	9.5	2,000 (67.0)	2,098 (68.1)	98 (1.1)	4.9
학력	중학교 이하	140 (22.0)	130 (19.6)	-10 (-2.4)	-6.9	813 (27.3)	823 (26.7)	10 (-0.5)	1.2
	고등학교	179 (28.1)	192 (28.9)	13 (0.8)	7.2	929 (31.1)	939 (30.5)	10 (-0.6)	1.1
	대학교	271 (42.5)	281 (42.3)	10 (-0.2)	3.7	1,095 (36.7)	1,157 (37.6)	62 (0.9)	5.6
	대학원 이상	47 (7.4)	61 (9.2)	14 (1.8)	29.0	146 (4.9)	159 (5.2)	14 (0.3)	9.4
총계		637 (100.0)	664 (100.0)	27 (0.0)	4.2	2,983 (100.0)	3,078 (100.0)	95 (0.0)	3.2

자료 :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단시간 근로자는 교육서비스, 보건복지서비스, 도소매업에서 상승

- 교육서비스업 16.6%로 전년대비 0.7%p 상승
- 보건복지서비스업 12.9%로 전년대비 1.0%p 상승
- 도소매업 12.1%로 전년대비 0.7%p 상승
- 한편, 2016년 상위 분포 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행정서비스업이 2017년에 포함됨. 공공행정서비스업의 단시간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의 결과로 보임.

<표-35> 단시간 근로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상위 산업	서울		전국	
	2016	2017	2016	2017
1	교육서비스업 (15.9)	교육서비스업 (16.6)	음식숙박업 (15.0)	보건복지서비스업 (15.5)
2	음식숙박업 (15.7)	음식숙박업 (15.6)	보건복지서비스업 (14.5)	음식숙박업 (15.0)
3	보건복지서비스업 (11.9)	보건복지서비스업 (12.9)	교육서비스업 (13.6)	교육서비스업 (13.8)
4	도소매업 (11.4)	도소매업 (12.1)	도소매업 (11.0)	도소매업 (11.6)
5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7.9)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7.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7.4)	공공행정서비스업 (7.5)
6	개인서비스업 (7.8)	개인서비스업 (6.1)	공공행정서비스업 (7.2)	건설업 (6.4)
7	건설업 (6.8)	공공행정서비스업 (5.9)	건설업 (6.3)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1)

자료 :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근로시간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크게 증가하였고, 시간당 임금 7.7% 상승

- 근로시간 15시간미만 초단시간근로자 17만 1천명으로 전년대비 3만 1천명(22.6%) 증가  
단시간 중 초단시간근로자 25.7%로 전년대비 3.9%p 상승
- 주당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전년대비 0.8시간(3.7%) 감소
- 시간당 임금 12,829원으로 전년대비 915원(7.7%) 감소
- 초단시간 근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 중요해짐. 고학력 청년층이 많이 분포하는 교육서비스업과 보건복지서비스업 확대와 공공행정의 중고령 일자리 창출 영향이 주요한 것으로 보임.

<표-36>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여건

(천 명, %, 만 원, 시간, 원)

근로여건 <sup>11)</sup> (단시간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근로 시간	15시간미만	139 (21.9)	171 (25.7)	31 (3.9)	22.6	661 (22.2)	736 (23.9)	74 (1.7)	11.2
	16~25시간	271 (42.6)	289 (43.5)	17 (0.9)	6.3	1,234 (41.4)	1,273 (41.4)	39 (0.0)	3.2
	26~36시간 미만	227 (35.5)	205 (30.8)	-22 (-4.7)	-9.6	1,088 (36.5)	1,070 (34.8)	-18 (-1.7)	-1.7
월평균임금		112.0	111.1	-0.9	-0.8	99.2	101.3	2.1	2.1
주당 근로시간		21.7	20.9	-0.8	-3.7	21.8	21.5	-0.3	-1.5
시간당 임금		11,914	12,829	915	7.7	10,457	11,011	554	5.3

자료 :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11)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고용보험 관련 항목을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현황은 제외됨.

4) 저임금 근로자<sup>12)</sup>

□ 2017년 서울의 저임금근로자 4.9% 감소. 그러나 고령층과 고학력자에서 증가

&lt;표-37&gt; 저임금 근로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천 명, %)

인구사회적 요인 (저임금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연령	15~34세	253 (29.6)	255 (31.3)	2 (1.7)	0.7	1,279 (27.6)	1,143 (27.7)	-135 (0.1)	-10.6
	35~44세	97 (11.3)	91 (11.2)	-5 (-0.1)	-5.7	667 (14.4)	545 (13.2)	-123 (-1.2)	-18.4
	45~54세	166 (19.4)	145 (17.8)	-21 (-1.6)	-12.6	947 (20.5)	781 (18.9)	-166 (-1.5)	-17.6
	55~64세	193 (22.6)	172 (21.1)	-22 (-1.5)	-11.2	956 (20.6)	857 (20.8)	-98 (0.1)	-10.3
	65세 이상	146 (17.1)	150 (18.5)	5 (1.4)	3.1	780 (16.9)	798 (19.4)	18 (2.5)	2.4
성별	남	263 (30.8)	246 (30.2)	-17 (-0.6)	-6.6	1,304 (28.2)	1,151 (27.9)	-152 (-0.2)	-11.7
	여	591 (69.2)	567 (69.8)	-24 (0.6)	-4.1	3,325 (71.8)	2,973 (72.1)	-352 (0.2)	-10.6
학력	중학교 이하	228 (26.7)	212 (26.1)	-16 (-0.6)	-6.9	1,363 (29.4)	1,245 (30.2)	-118 (0.7)	-8.7
	고등학교	323 (37.8)	282 (34.7)	-41 (-3.1)	-12.8	1,775 (38.4)	1,492 (36.2)	-283 (-2.2)	-16.0
	대학교	276 (32.3)	284 (34.9)	8 (2.7)	3.0	1,393 (30.1)	1,291 (31.3)	-102 (1.2)	-7.3
	대학원 이상	28 (3.3)	35 (4.3)	7 (1.1)	26.0	98 (2.1)	97 (2.3)	-1 (0.2)	-1.1
총계		855 (100.0)	813 (100.0)	-42 (0.0)	-4.9	4,629 (100.0)	4,124 (100.0)	-505 (0.0)	-10.9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12) 저임금 노동자는 주된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이 중위임금의 2/3 미만(133.3만원)인 노동자로 정의됨. 서울과 전국의 중위임금은 200만원으로 동일

- 저임금근로자 중 65세 이상 18.5%로 전년대비 3.1%p 상승
- 대학교와 대학원 이상 비중 34.9%와 4.3%로 전년대비 각각 2.7%p와 1.1%p 상승
- 노인일자리와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저임금 근로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임.
- 주목할 것은 고학력자 특히, 대학원 이상의 저임금 근로자가 늘어난 현상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보임.

**□ 저임금근로자는 음식숙박업, 보건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에서 상승**

<표-38> 저임금 근로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상위 산업	서울		전국	
	2016	2017	2016	2017
1	음식숙박업 (16.6)	음식숙박업 (17.7)	음식숙박업 (15.3)	음식숙박업 (16.1)
2	도소매업 (13.9)	도소매업 (13.7)	도소매업 (13.3)	보건복지서비스업 (13.8)
3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3.0)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2.1)	보건복지서비스업 (13.5)	도소매업 (13.3)
4	보건복지서비스업 (10.4)	보건복지서비스업 (10.5)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5)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9.1)
5	교육서비스업 (9.4)	교육서비스업 (10.3)	제조업 (10.0)	제조업 (8.8)
6	개인서비스업 (8.6)	개인서비스업 (7.3)	교육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 (8.5)
7	제조업 (7.0)	제조업 (5.8)	개인서비스업 (6.4)	공공행정서비스업 (6.3)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음식숙박업 17.7%로 전년대비 1.1%p 상승

- 보건복지서비스업 10.5%로 전년대비 0.1%p 상승
- 교육서비스업 10.3%로 전년대비 0.9%p 상승

**□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증가하였고, 월평균임금 2.1% 감소**

- 고용보험 미가입자 비중 69.0%로 전년대비 4.1%p 상승
- 월평균임금 83.5만 원으로 전년대비 1.8만원(2.1%) 감소
- 주당 근로시간 30.4시간으로 전년대비 1.7시간(5.2%) 감소
-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확대, 월평균·시간당 임금이 줄어든 것은 고령자 진입이 확대된 결과로 보임. 고령자는 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표-39>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여건

(천 명, %, 만 원, 시간, 원)

근로여건 (저임금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고용 보험	가입	289 (35.0)	246 (31.0)	-43 (-4.0)	-14.7	1,715 (36.7)	1,349 (32.5)	-366 (-4.2)	-21.4
	미가입	536 (64.9)	548 (69.0)	12 (4.1)	2.3	2,955 (63.2)	2,801 (67.4)	-154 (4.2)	-5.2
	특수직역	1 (0.1)	0 (0.1)	0 (-0.1)	-50.7	5 (0.1)	4 (0.1)	-1 (0.0)	-17.5
월평균임금		85.3	83.5	-1.8	-2.1	85.7	83.1	-2.6	-3.1
주당 근로시간		32.1	30.4	-1.7	-5.2	32.7	30.7	-2.0	-6.1
시간당 임금		6,966	7,399	433	6.2	6,742	6,959	217	3.2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5) 소규모 자영업<sup>13)</sup>

□ 2017년 소규모 자영업 전년대비 증가

- 5인 미만 자영업 0.5%, 1인 자영업 1.5%,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자영업 0.2% 증가

<표-40> 소규모 자영업의 규모

(천 개, %)

소규모 자영업 (전체 사업장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5인미만 자영업	649 (79.2)	653 (79.3)	3 (0.1)	0.5	3,173 (80.3)	3,228 (80.3)	55 (0.0)	1.7
1인 자영업	329 (40.2)	334 (40.6)	5 (0.5)	1.5	1,586 (40.1)	1,635 (40.7)	49 (0.5)	3.1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자영업	296 (36.1)	296 (36.0)	1 (-0.1)	0.2	1,570 (39.8)	1,580 (39.3)	10 (-0.4)	0.6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2017년 소규모 자영업자 종사자 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그대로

- 5인미만 자영업 종사자 119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7천명(1.4%) 증가
- 1인 자영업 종사자 33만 4천명으로 전년대비 5천명(1.5%) 증가
-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41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3천명(0.6%) 증가
- 소규모 자영업자의 양적인 증가는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노동복지

13) 소규모 자영업은 종사자 규모와 연매출을 고려하여 3가지로 정의됨.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체를 소규모 자영업으로 보고, 이에 더하여 1인 자영업, 연매출이 5,000만 원 미만 자영업자를 추가로 살펴봄. 연매출 5,000만 원은 간이과세대상자가 연매출 4,800만원인 점이 참고되었으며, 데이터의 한계로 200만원의 격차가 발생함.

정책의 정책적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

<표-41> 소규모 사업장의 종사자 규모

(천 명, %)

소규모 자영업 종사자 (전체 종사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5인미만 자영업자 종사자	1,175 (23.1)	1,192 (23.3)	17 (0.1)	1.4	5,706 (26.8)	5,848 (27.0)	142 (0.2)	2.5
1인 자영업자 종사자	329 (6.5)	334 (6.5)	5 (0.0)	1.5	1,586 (7.5)	1,635 (7.6)	49 (0.1)	3.1
연매출 5천만원 미만 종사자	412 (8.1)	415 (8.1)	3 (0.0)	0.6	2,216 (10.4)	2,224 (10.3)	8 (-0.1)	0.4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예술스포츠서비스, 부동산, 음식숙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증가

- 음식숙박업 10만 4천개로 전년대비 2천개(1.7%) 증가
- 도소매업 19만 4천개로 전년대비 2천개(1.0%) 감소

<표-42> 산업별 소규모 자영업 규모

(천 개, %)

5인미만 사업장 (소규모자영업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제조업	47 (7.3)	47 (7.1)	0 (-0.1)	-1.0	275 (8.7)	275 (8.5)	0 (-0.2)	-0.1
건설업	13 (2.0)	13 (2.0)	0 (0.0)	0.8	76 (2.4)	77 (2.4)	2 (0.0)	2.2
도소매	196 (30.2)	194 (29.8)	-2 (-0.5)	-1.0	894 (28.2)	897 (27.8)	3 (-0.4)	0.3
운수창고업	90 (13.9)	89 (13.7)	-1 (-0.2)	-1.1	363 (11.4)	363 (11.3)	1 (-0.2)	0.2
음식숙박업	102 (15.8)	104 (16.0)	2 (0.2)	1.7	633 (20.0)	649 (20.1)	16 (0.2)	2.6

50 취약계층 근로자 동향

5인미만 사업장 (소규모자영업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정보통신업	13 (2.0)	13 (2.0)	0 (0.1)	3.3	24 (0.8)	25 (0.8)	1 (0.0)	4.2
금융보험업	3 (0.5)	4 (0.6)	1 (0.1)	14.5	12 (0.4)	13 (0.4)	1 (0.0)	10.9
부동산업	32 (4.9)	33 (5.1)	1 (0.2)	4.5	120 (3.8)	129 (4.0)	9 (0.2)	7.1
전문서비스업	24 (3.8)	25 (3.8)	0 (0.0)	0.5	66 (2.1)	67 (2.1)	1 (0.0)	1.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 (1.6)	10 (1.6)	0 (0.0)	0.8	45 (1.4)	47 (1.4)	1 (0.0)	2.8
교육서비스업	25 (3.8)	25 (3.8)	0 (0.0)	0.7	136 (4.3)	138 (4.3)	2 (0.0)	1.4
보건복지서비스업	13 (2.0)	13 (2.0)	0 (0.0)	0.0	60 (1.9)	60 (1.9)	0 (0.0)	-0.7
예술스포츠서비스업	18 (2.8)	19 (3.0)	1 (0.2)	5.9	97 (3.1)	105 (3.2)	7 (0.2)	7.5
개인서비스업	62 (9.5)	63 (9.6)	1 (0.1)	1.7	361 (11.4)	373 (11.5)	11 (0.2)	3.1
5인미만 자영업자	1,175 (100.0)	1,192 (100.0)	17 ( - )	1.4	5,706 (100.0)	5,848 (100.0)	142 ( - )	2.5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건설업, 교육서비스, 숙박음식점에서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증가

- 건설업 2만 8천명으로 2천명(7.6%) 증가
- 교육서비스업 4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2천명(5.1%) 증가
- 숙박음식점업 23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1천명(4.9%) 증가  
비중은 19.5%로 전년대비 0.6%p 상승

&lt;표-43&gt; 산업별 소규모 사업장의 종사자 규모

(천 명, %)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소규모자영업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제조업	98 (8.3)	99 (8.3)	1 (0.0)	1.0	579 (10.2)	583 (10.0)	4 (-0.2)	0.6
건설업	26 (2.2)	28 (2.3)	2 (0.1)	7.6	159 (2.8)	177 (3.0)	17 (0.2)	11.0
도소매	363 (30.9)	364 (30.6)	2 (-0.3)	0.4	1,620 (28.4)	1,644 (28.1)	25 (-0.3)	1.5
운수창고업	96 (8.2)	95 (8.0)	-1 (-0.2)	-1.2	395 (6.9)	395 (6.8)	-1 (-0.2)	-0.1
음식숙박업	221 (18.8)	232 (19.5)	11 (0.6)	4.9	1,305 (22.9)	1,367 (23.4)	62 (0.5)	4.7
정보통신업	26 (2.2)	26 (2.2)	0 (0.0)	0.2	51 (0.9)	51 (0.9)	1 (0.0)	1.4
금융보험업	7 (0.6)	8 (0.7)	1 (0.1)	12.5	27 (0.5)	29 (0.5)	2 (0.0)	8.1
부동산업	56 (4.7)	56 (4.7)	1 (0.0)	1.2	201 (3.5)	209 (3.6)	8 (0.1)	4.0
전문서비스업	53 (4.5)	51 (4.3)	-1 (-0.2)	-2.3	143 (2.5)	142 (2.4)	-1 (-0.1)	-0.5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1 (1.8)	21 (1.7)	0 (0.0)	-1.1	89 (1.6)	89 (1.5)	1 (0.0)	0.7
교육서비스업	43 (3.6)	45 (3.8)	2 (0.1)	5.1	236 (4.1)	251 (4.3)	14 (0.1)	6.1
보건복지서비스업	39 (3.3)	38 (3.2)	0 (-0.1)	-1.2	179 (3.1)	175 (3.0)	-3 (-0.1)	-1.8
예술스포츠서비스업	33 (2.8)	34 (2.9)	1 (0.0)	3.0	173 (3.0)	181 (3.1)	7 (0.1)	4.3
개인서비스업	94 (8.0)	94 (7.9)	0 (-0.1)	-0.2	527 (9.2)	532 (9.1)	5 (-0.1)	1.0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3. 주요 이슈 동향

#### 1) 최저임금미만 근로자<sup>14)</sup>

□ 2017년 서울의 최저임금 미만자 9.7% 증가. 44세 이하의 젊은 계층과 대학교과 대학원의 고학력자에서 특징적으로 증가

- 15~34세와 35~44세 29.0%와 10.3%로 전년대비 각각 2.1%p와 1.1%p 상승
- 대학교와 대학원 이상 29.0%와 2.4%로 전년대비 3.0%p와 0.8%p 상승
- 최저임금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청년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 특히,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행정력 확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표-44> 최저임금미만 근로자의 인구사회적 구성

(천 명, %)

인구사회적 요인 (최저임금미만 근로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연령	15~34세	129 (26.8)	153 (29.0)	24 (2.1)	18.4	713 (26.6)	741 (27.0)	27 (0.4)	3.8
	35~44세	44 (9.1)	54 (10.3)	10 (1.1)	23.5	309 (11.5)	319 (11.6)	10 (0.1)	3.3
	45~54세	92 (19.1)	98 (18.5)	6 (-0.6)	6.0	513 (19.1)	499 (18.2)	-14 (-0.9)	-2.7
	55~64세	115 (23.9)	115 (21.8)	0 (-2.1)	-0.1	566 (21.1)	584 (21.3)	18 (0.2)	3.2
	65세 이상	101 (21.0)	108 (20.5)	7 (-0.5)	7.1	581 (21.7)	597 (21.8)	15 (0.1)	2.6

14) 최저임금미만 근로자는 월평균 급여와 근로시간을 고려했을 때, 시간당 임금이 해당년도의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인구사회적 요인 (최저임금미만 근로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성별	남	176 (36.6)	196 (37.1)	20 (0.5)	11.2	910 (33.9)	922 (33.7)	12 (-0.3)	1.3
	여	305 (63.4)	332 (62.9)	27 (-0.5)	8.8	1772 (66.1)	1817 (66.3)	45 (0.3)	2.5
학력	중학교 이하	149 (30.9)	155 (29.3)	6 (-1.6)	4.0	930 (34.7)	919 (33.6)	-11 (-1.1)	-1.2
	고등학교	200 (41.5)	207 (39.3)	8 (-2.2)	3.9	1044 (38.9)	1060 (38.7)	17 (-0.2)	1.6
	대학교	125 (26.0)	153 (29.0)	28 (3.0)	22.4	674 (25.1)	721 (26.3)	47 (1.2)	7.0
	대학원 이상	8 (1.6)	13 (2.4)	5 (0.8)	64.7	34 (1.3)	38 (1.4)	4 (0.1)	10.5
총계		481 (100.0)	528 (100.0)	47 (0.0)	9.7	2682 (100.0)	2739 (100.0)	57 (0.0)	2.1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 최저임금 미만자 음식숙박,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제조업에서 상승

- 음식숙박업 21.0% 전년대비 0.1%p 상승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3.5%로 전년대비 0.6%p 상승
- 제조업 8.2%로 전년대비 0.3%p 상승
- 반면, 도소매업 1.2%p 하락
- 음식숙박업과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관찰 및 감독을 집중하고, 미준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

<표-45> 최저임금미만 근로자의 산업별 상위 분포

(%)

상위 산업	서울		전국	
	2016	2017	2016	2017
1	음식숙박업 (20.9)	음식숙박업 (21.0)	음식숙박업 (19.0)	음식숙박업 (18.6)
2	도소매업 (16.4)	도소매업 (15.2)	도소매업 (14.8)	도소매업 (14.7)
3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2.9)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3.5)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5)	보건복지서비스업 (11.5)
4	개인서비스업 (8.9)	제조업 (8.2)	보건복지서비스업 (11.3)	제조업 (10.4)
5	제조업 (7.9)	보건복지서비스업 (7.8)	제조업 (10.0)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2)
6	보건복지서비스업 (8.0)	개인서비스업 (7.6)	개인서비스업 (6.8)	개인서비스업 (6.3)
7	교육서비스업 (4.9)	교육서비스업 (4.8)	공공행정서비스업 (6.0)	공공행정서비스업 (5.7)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최저임금미만자 주당 근로시간 43.6시간이고, 시간당임금 5,122원

- 주당 근로시간 43.6시간으로 전년대비 0.5시간(1.1%) 증가
- 시간당 임금 5,122원으로 전년대비 317원(6.6%) 증가

**<표-46> 최저임금미만 근로자의 근로여건**

(천 명, %, 만 원, 시간, 원)

근로여건 (최저임금미만 근로자 중 비중)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고용 보험	가입	140 (29.6)	173 (32.9)	33 (3.3)	23.6	835 (30.4)	921 (32.4)	86 (2.0)	10.2
	미가입	333 (70.3)	353 (67.1)	20 (-3.2)	6.0	1,915 (69.6)	1,920 (67.5)	6 (-2.0)	0.3
	특수직역	0 (0.1)	0 (0.0)	0 (-0.1)	0.0	2 (0.1)	2 (0.1)	0 (0.0)	0
월평균임금		90.8	97.9	7.1	7.8	85.9	92.4	6.4	7.5
주당 근로시간		43.1	43.6	0.5	1.1	40.6	40.8	0.2	0.4
시간당 임금		4,805	5,122	317	6.6	4,813	5,136	323	6.7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최저임금 미달총액 7억 1천 1백만 원**

- 2017년 서울의 최저임금 미달액 규모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달총액 711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22백만 원(20.6%) 증가
- 시간당 최저임금 미달액은 1,348원으로 전년대비 122원(10.0%) 증가

**<표-47> 최저임금 미달액 규모**

(백만 원, 원)

미달액 규모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최저임금 미달총액	589	711	122	20.6	3,263	3,652	389	11.9
시간당 최저임금 미달액	1,226	1,348	122	10.0	1,217	1,333	117	9.6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2) 그냥 쉬었음

### □ 서울의 그냥 쉬 쉰 청년 전년대비 5% 증가

<표-48> 그냥 쉬었음의 인구사회적 구성

(천 명, %)

그냥 쉬었음		서울				전국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연령	15~34세	87 (26.1)	91 (24.4)	4 -1.7)	4.9	431 (22.2)	437 (21.4)	7 -0.9)	1.5
	35~44세	56 (16.8)	49 (13.1)	-7 -3.7)	-12.4	230 (11.9)	208 (10.2)	-21 -1.7)	-9.3
	45~54세	66 (19.7)	62 (16.4)	-4 -3.3)	-6.6	296 (15.3)	291 (14.2)	-5 -1.1)	-1.7
	55~64세	111 (33.3)	110 (29.4)	-1 -3.9)	-0.9	572 (29.6)	581 (28.4)	9 -1.2)	1.6
	65세 이상	13 (4.0)	62 (16.6)	49 (12.6)	364.1	408 (21.1)	529 (25.9)	122 (4.8)	29.9
성별	남	253 (75.7)	281 (74.9)	28 -0.8)	11.1	1,509 (78.0)	1,599 (78.1)	90 (0.2)	6.0
	여	81 (24.3)	94 (25.1)	13 (0.8)	15.9	427 (22.0)	448 (21.9)	21 -0.2)	5.0
학력	중학교 이하	53 (15.8)	68 (18.3)	16 (2.5)	30.2	502 (25.9)	526 (25.7)	24 -0.2)	4.9
	고등학교	125 (37.4)	138 (36.9)	13 -0.6)	10.5	734 (37.9)	773 (37.8)	39 -0.2)	5.3
	대학교	141 (42.1)	150 (40.0)	9 -2.1)	6.6	641 (33.1)	678 (33.1)	36 (0.0)	5.7
	대학원 이상	16 (4.7)	18 (4.9)	3 (0.2)	16.7	59 (3.1)	70 (3.4)	11 (0.4)	18.8
총계		334 (100.0)	375 (100.0)	41 (0.0)	12.2	1,936 (100.0)	2,047 (100.0)	111 (0.0)	5.7

자료 : 통계청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조사 기간에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 37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4만 1천 명(12.2%) 증가
- 증가한 4만 1천 명 중 상당부분은 노인이나, 청년도 4천 명 증가
- 청년들이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강화되어야 할 것

### 3) 임금체불

#### □ 2017년 임금체불 사업체, 근로자, 체불금액 모두 감소로, 임금체불 상황 개선

<표-49> 임금체불 변동

(개, 명, 억 원, 천 원)

	2016	2017	증감	증감률
사업체수	30,333	29,856	-477	-1.6
근로자수	62,854	61,514	-1,340	-2.1
전체 임금체불금액	3,096	2,898	-198	-6.4
1인당 임금체불금액	4,926	4,711	-214	-4.4

자료 : 서울시 고용노동청 정보공개청구자료

#### □ 종사자 규모 100~299인 임금체불 증가. 반면, 다른 범주에선 감소

- 2017년 임금체불총액 100~299인 사업장 27,537백만 원으로 7,557백만 원(37.8%) 증가
- 반면, 소규모 사업체 포함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총액 감소

<표-50> 종사자규모별 임금체불액

(백만 원, 천 원)

	임금체불총액				1인당 임금체불액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5인미만	85,103	82,709	-2,393	-2.8	3,380	3,271	-109	-3.2
5~29인	139,161	128,255	-10,906	-7.8	5,640	5,462	-178	-3.2
30~99인	45,147	43,571	-1,576	-3.5	6,687	6,840	154	2.3
100~299인	19,980	27,537	7,557	37.8	6,406	7,442	1,036	16.2
300인 이상	20,237	7,729	-12,508	-61.8	13,995	6,058	-7,937	-56.7

자료 : 서울시 고용노동청 정보공개청구자료

□ **건설업, 제조업 임금체불 감소. 반면,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증가**

- 건설업 4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4억 원(25.2%) 감소
- 제조업 273억 원으로 전년대비 24억 원(8.1%) 감소
- 도소매음식숙박 699억 원으로 전년대비 19억 원(2.8%) 증가
- 운수창고통신 641억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원(1.8%) 증가

<표-51> 산업별 임금체불액

(백만 원, 천 원)

	임금체불총액				1인당 임금체불액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제조업	29,781	27,356	-2,425	-8.1	5,910	5,650	-260	-4.4
건설업	53,548	40,053	-13,495	-25.2	4,703	3,811	-893	-19.0
도소매음식숙박	67,987	69,915	1,927	2.8	3,567	3,607	40	1.1
운수창고통신	63,007	64,114	1,107	1.8	8,263	8,611	347	4.2
금융및부동산임대	61,151	57,525	-3,627	-5.9	5,320	5,145	-175	-3.3

자료 : 서울시 고용노동청 정보공개청구자료

## V.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 청년 실업과 근로조건이 악화되었고, 취약계층 근로자와 그냥 쓴 집단이 증가

- 전년대비 2017년 청년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모두 상승하였음.
- 청년이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상당히 진입한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서비스업은 청년 임금근로자 빠르게 확대되어, 4번째로 많이 분포하는 산업이 됨. 도소매업은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비중은 더욱 상승함.
- 청년 임금근로의 질은 상용직이 감소하고 고용보험의 미가입자가 늘었으며, 월평균임금에선 미약한 증가를 보였음.
- 청년은 기간제, 단시간, 저임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그냥 쓴 집단이 증가하여, 청년 내 취약계층 근로자가 확대되었음.
- 2017년 서울 청년의 경제활동 결과를 고려하면, 상승하는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더욱 중요해졌음. 특히, 보건복지서비스업은 괜찮은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보임.
- 청년의 임금근로 질과 취약계층 비중은 전년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노동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강화가 필요해보임. 그리고 청년 니트족들이 경제활동 또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눈에 띄는 현상은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임금근로자에서 취약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임. 대학원 이상은 대부분 청년들로 어겨지며, 임시일용직, 기간제, 단시간, 저임금, 최저임금 미만, 그냥 쓴 집단에서 이들의 비중이 늘어났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 원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보임.

□ 여성 임금근로자 증가 속도가 빠른 반면, 초등·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증가

- 전년대비 2017년 여성의 경제활동, 고용률, 실업률이 모두 상승함.
- 여성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았던 산업이 도소매업에서 보건복지서비스업으로 바뀜.
- 또한, 2017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이는 초등자녀돌봄과 가족돌봄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었음.
- 서울은 서비스산업이 빠르게 늘고 있고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많아, 경제활동을 선택하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됨.
- 이들은 보건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주요하게 분포하고 있음. 2017년에는 보건복지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상승함.
- 서울의 노동정책은 여성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높아짐.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과 더불어, 보건복지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관심이 중요해짐.
- 한편,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늘었는데, 결혼·육아에 의한 것보다 초등·가족돌봄으로 인한 요인이 확대됨. 결혼 및 출산율 감소와 육아 정책으로 그로 인한 경력단절은 줄어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초등돌봄과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증가하여, 가사간병 및 장기요양보호, 초등돌봄을 지원하는 돌봄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노인은 임금근로자와 실업자 증가 속도가 빠르고, 이들로 인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커짐

- 전년대비 2017년 서울 노인의 실업률은 빠르게 상승 반면, 고용률은 여전히 낮음. 서울은 전국보다 취업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일하려는 노인에 비해 그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실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일하는 노인 중 임금근로자 증가세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주로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과 공공행정서비스업에서 크게 증가. 노인의 종사산업 중 공공행정서비스업 확대가 눈에 띈. 이는 고령자 일자리 정책의 성과로 보임.
- 한편, 고용보험 가입 현황(사회적 보호)은 노인, 임시일용직, 단기간근로자, 저임금근로자에서 감소하고, 미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늘어가는 것은 65세 이상에서 근로자가 증가한 영향 때문으로 보임.
- 정책적으로, 노인 실업률 완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노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적·민간 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임.
- 또한, 고령 근로자들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향후 노인 근로자가 늘어가는 것을 잠정적 사실로 인식한다면,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 최저임금 감독, 노동권 보호 강화 등과 같은 노동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보건복지서비스업은 기간제, 교육서비스업은 시간제,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증가 주도

- 2017년 취약계층 근로자 동향을 살펴보면, 임시일용직·저임금근로자는 감소하였지만, 기간제, 시간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간제 근로자는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시간제 근로자는 교육서비스업에서, 최저임금미만 근로자는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우선, 각 취약계층 근로자가 각 산업에서 늘어나는 현상이 이해되어야 하고, 필요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동향과 이슈 2019-03

# 서울의 노동 동향 16~17

박정우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노동권익센터